

2025

CAMP 1. 2. 3. 4

4 CAMP, 4 LEARNING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GERMAN VILLAGE SCHOOLING CAMP

2025

4 CAMP, 4 LEARNING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1.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5
1-1. 남해 독일마을에 대하여		6
1-2.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8
2.		
네 번의 캠프, 네 번의 배움		17
2-1. CAMP 1.		20
할로 두Hallo Du, 하모		
2-2. CAMP 2.		30
숨숨Summ Summ, 씬		
2-3. CAMP 3.		40
틱탁Tick Tack, 젊다 아이가!		
2-4. CAMP 4.		50
찌끄짜끄Zick Zack! 니랑 내랑		
3.		
나만의 한 페이지		61
4.		
스쿨링캠프 이야기		191
4-1. 독일마을 주민 INTERVIEW		192
4-2. 참가자 REVIEW		198



2025

1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마을

남해 독일마을

NAMHAE GERMAN VILLAGE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 8천여 명의 광부와 1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건너갔고, 월급의 80%를 가족과 고국에 보내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독일로 건너간 파독 근로자들은, 독일에서 배우자를 만나 은퇴한 뒤에도 30여 년을 독일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1997년, 독일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던 남해군이 남은 삶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우리 교포들을 만나게 되고, 1999년부터 파독 근로자들을 위한 ‘독일마을’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렇듯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독일마을은 은퇴한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마을입니다. 독일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파독 근로자들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졌고, 이들은 독일 자재와 가구들을 들여와 빨간 지붕이 특징인 독일 주택 양식으로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현재 독일마을에는 1세대 파독 근로자를 비롯하여 그들의 자녀들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따스한 남해로 돌아오는 것은 독일마을 주민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입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SEP - NOV

CAMP 1.

할로 두Hallo Du, 하모

CAMP 2.

숨숨Summ Summ, 쉽

CAMP 3.

틱탁Tick Tack 젊다 아이가!

CAMP 4.

찌끄짜끄Zick Zack! 니랑 내랑

마케팅 용어로서의 ‘스쿨링캠프’란, 영어권 국가(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를 경험하는 단기 영어 캠프를 말합니다. 즉 해당 국가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캠프를 말합니다.

독일마을은 독일 소시지와 맥주뿐만 아니라 독일식 조식과 기념품 등 다양한 독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점가와 마을 주민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 직접 파견되어 독일 문화를 경험한 파독 광부·간호사분들과 독일교포, 독일인들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놀이play하고, 남해와 독일의 문화를 경험experience하며 참여자들의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 교류의 장place for cultural exchange이 바로 독일마을 스쿨링캠프입니다.

오래전 독일이 한국 청년들을 품어 주었던 것처럼, 남해군은 노인이 된 청년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포용하는 마음’을 품은 남해 독일마을은 온전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2박 3일 간의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그리고 타인과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을 배웁니다.



CAMP 1.

할로 두, 하모Hallo Du, Hamo

‘Halo du(할로 두)’는 독일어로 ‘안녕’. ‘하모’는 경상도 사투리로 ‘아무렴’이라는 뜻입니다. 작년에도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를 경험하셨던 분들과 함께 한 캠프로, 독일마을에서 ‘환대하는 마음’을 배우는 캠프입니다.



CAMP 2.

숨숨, 쉽Summ Summ, Shym

‘Summ Summ(숨숨)’은 독일어로 벌이 날아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해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쉽의 방식’을 경험하며 나에게 맞는 쉽의 형태를 찾아보는 캠프입니다.



CAMP 3.

틱탁Tick Tack 젊다 아이가!

‘Tick Tack(틱탁)’은 독일어로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나타낸 말로, 인생 제 2막을 꿈꾸는 은퇴 준비생과 액티브시니어들이 모여, 서로 동지가 되어 주며 ‘나를 위로하는 마음’을 느껴보는 캠프입니다.



CAMP 4.

찌끄짜끄Zick Zack! 니랑 내랑

‘Zick Zack(찌끄짜끄)’는 독일어로 툼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에서 비롯된 의성어입니다.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가자들, 독일마을 주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교류하며 ‘함께 하는 법’을 배우는 캠프입니다.

첫 번째 배움

환대하는 마음

환대란, 낯선 이에게도
마음의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조용한 용기

CAMP 1.

할로 두, 하모

세 번째 배움

나를 위로하는 법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온 마음을
다시 조용히 품어 안아주는 일

CAMP 3.

틱탁, 젊다 아이가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두 번째 배움

쉼의 방식

지친 에너지를 회복하고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

CAMP 2.

숨숨, 쉼

네 번의 배움

네 번째 배움

함께 하는 법

각자의 역할과 속도를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정해 나가는 실천

CAMP 4.

찌끄짜끄, 니랑 내랑



CAMP 1

할로 두, 하모

DAY 1

- 12:00 독일마을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 13:00 독일마을에서 먹는 점심
- 14:00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 15:00 파독전시관 관람
- 16:30 남해 바다 요트 체험
- 18:00 저녁 식사
- 19:00 재회의 밤 in 독일마을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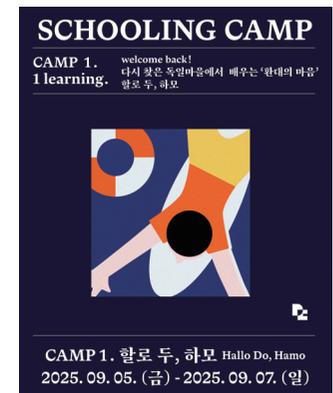
DAY 2

- 08:30 독일식 아침 식사 in 베를린성
- 10:00 양떼목장 체험
- 11:30 점심 식사
- 13:00 물미해안전망대 클리프 워크 체험
- 14:00 또 가고 싶은 남해 - 상주 은모래 비치
- 16:00 킨더폴카 원데이 클래스
- 18:00 저녁 식사

DAY 3

- 08:30 아침 식사
- 10:00 스쿨링캠프 기록북 워크숍 in 남해각
- 13:00 점심 식사
- 15:00 귀가

2025.
09. 05. FRI
-
09. 07. SUN
3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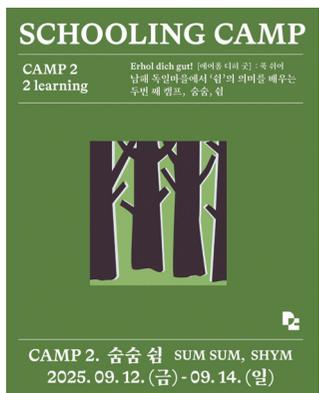


1회차 캠프 포스터

CAMP 2 숨숨, 씬

DAY 1	
12:00	독일마을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13:00	독일마을에서 먹는 점심
14:00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15:00	독일마을 하우스투어(빌라콜로니아/ 호수위의 집) & 차담회
16:00	숙소 체크인
16:30	사일런스 치유 워크숍 in 물건방조어부림
18:00	저녁식사
19:00	음악이 있는 밤 in 옥토버 하우스
DAY 2	
08:30	독일식 아침 식사 in 베를린성
10:00	편백숲 산책 in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
12:30	점심 식사
14:00	힐링 오르골 만들기 체험
15:30	파독전시관 관람
17:00	깊은 밤 명상 체험 in 스페이스 미조
18:30	저녁 식사
DAY 3	
08:30	아침 식사
10:00	스쿨링캠프 기록북 워크숍 in 남해각
13:00	점심식사
15:00	귀가

2025.
09. 12. FRI
-
09. 14. SUN
3 DAYS



2회차 캠프 포스터

CAMP 3 틱탁, 젊다 아이가

DAY 1	
12:00	독일마을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13:00	독일마을에서 먹는 점심
14:00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15:30	숙소 체크인
16:30	독일마을 상점가 자유 여행
17:30	저녁 식사
18:30	브라보! 마이 라이프 in 독일마을 광장
DAY 2	
08:30	독일식 아침 식사 in 베를린성
10:00	편백숲 산책 in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
13:00	점심식사
14:30	노도 문학 워크숍 in 노도
17:40	저녁 식사
DAY 3	
08:30	아침 식사
09:30	독일마을 사진관 in 독일마을 with 마파람사진관
11:40	점심 식사
12:30	남해각 해설 투어
13:00	시 낭송 & 소감 나누기
15:00	귀가

2025.
10. 31. FRI
-
11. 02. SUN
3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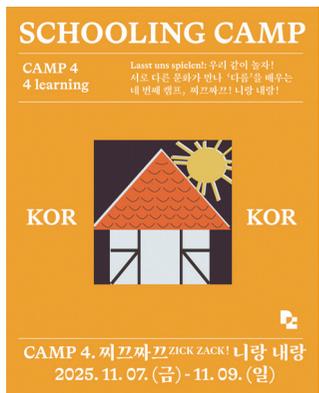


3회차 캠프 포스터

CAMP 4
찌끄짜끄
니랑내랑

DAY 1	
12:00	독일마을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12:40	독일마을에서 먹는 점심
13:30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 파독전시관
15:00	물미해안전망대 클리프 워크 체험
17:00	‘기억의 밤’ - 독일마을 주민 토크쇼
18:40	저녁식사
DAY 2	
08:30	독일식 아침 식사 in 옥토버 카페
10:00	독일마을 하우스투어(빌라콜로니아/ 호수위의 집) & 차담회
11:30	힐링 오르골 만들기 체험
13:10	점심 식사
14:30	마니또 초상화 그려주기 in 스페이스 미조
15:30	KOR×GER 미니 운동회
17:00	저녁 식사
18:30	킨더폴카 원데이 클래스 in 스페이스 미조
DAY 3	
09:00	아침 식사
10:30	남해 스쿨링캠프 기록북 워크숍 in 옥토버 카페
12:40	점심 식사
15:30	귀가

2025.
11. 07. FRI
-
11. 09. SUN
3 DAYS



네 번의 캠프, 네 번의 배움

2

4 CAMP, 4 LEARNING

네 번의 캠프, 네 번의 배움

CAMP 1. 1 LEARNING

Welcome Back!

다시 찾은 독일마을에서 배우는 ‘환대의 마음’ 첫 번째 캠프, 할로 두, 하모

CAMP 2. 2 LEARNING

Erhol dich gut!: 꼭 쉬어

남해 독일마을에서 ‘쉽’의 의미를 배우는 두 번째 캠프, 숨숨, 쉽

CAMP 3. 3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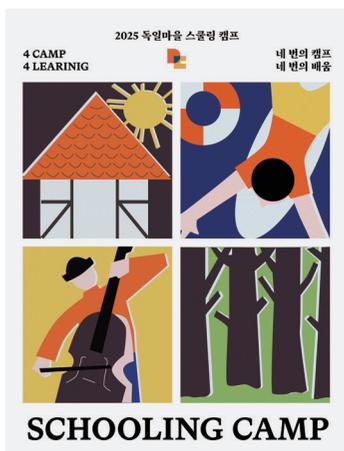
Zweite Blütezeit: 제2의 전성기

나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네. ‘자기 격려’를 해보는 세 번째 캠프, 톡톡! 젊다 아이가!

CAMP 4. 4 LEARNING

Lasst uns spielen!: 우리 같이 놀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다름’을 배우는 네 번째 캠프, 찌끄짜끄! 니랑 내랑!

4 CAMP, 4 LEARNING



스쿨링캠프 참여자 약속

남해 여행을 할 때

1. 남해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일을 존중해 주세요.
2.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시간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3. 함께 이동할 때는 동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인솔자에게 꼭 알려주세요.
4. 식사 자리에서 못 먹는 음식이나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THE LEARNER'S PROMISE

독일마을을 거닐 때

1. 독일마을은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마주치면 밝게 인사해 주세요.
2. 마을과 상점이 궁금하다면, 주민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3. 사진과 영상은 되도록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남겨주세요. (주민이나 다른 분들을 찍을 때는 동의를 구해 주세요.)

스쿨링캠프에 참여할 때

1. 프로그램 및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인솔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 숙박, 식사 등)

다른 캠퍼들과 대화할 때

1. 서로의 이야기를 동등한 입장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2.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외모, 가족 형태와 같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충고나 조언은 삼가 주세요.

HALO DU, HAMO

CAMP. 1

2-1. 첫 번째 캠프



LEARNING 1

환대하는 마음

CAMP 1. 할로 두, 하모

첫 번째 캠프

독일마을에서 ‘환대하는 마음’을 배운 <Camp 1. 할로 두 Halo du 하모 >. 작년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를 경험하셨던 분 중 우수 참가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재방문객들에게 남해, 그리고 독일마을에 대한 감각을 새롭고 즐겁게 전하기 위해 식사 메뉴부터 체험까지 변화를 주어 작년과는 다르게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첫날 저녁을 장식한 ‘재회의 밤’ 프로그램은 독일마을 주민이 캠프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독일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파독 광부 · 간호사, 마을 주민분들의 환영 인사가 담긴 오프닝 영상이 끝난 뒤, 파독 광부 ·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파독전시관 안에서 보던 역사의 인물들과 한 테이블에 둘러앉는 시간을 가졌죠. 마을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서로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독일 전통놀이를 즐겼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옥션마켓. 서부임, 류길자 파독 간호사님께서 독일에서 가져온 애장품을 선보이고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해에 재방문한 참가자들을 위해, 사전에 ‘또 가고 싶은 남해 여행지’를 조사했습니다. 재회의 밤 미니 게임 우승 팀이 정한 ‘상주는 모래비치’로 향했죠. 해수욕장을 자유롭게 거닐며, 자연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빙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통의상을 입고 독일 전통 춤인 킨더폴카를 배우며 참가자끼리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기록북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종이를 찢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껏 창의력을 표현했습니다. 여행 중 기억에 남았던 순간, 그리고 자신의 작업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2박 3일의 캠프를 기록하는 키팅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첫 회차 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프로그램들은, 캠프 재방문객들에게 마치 ‘고향집’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CAMP 1.

할로 두, 하모
HALO DU, HAMO

FOR

2024년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참가자

DATE

25. 09. 05(금) - 07(일)

LEARNING POINT

환대하는 마음

MAIN PROGRAM

1. 재회의 밤 - 여행자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광장 파티
 - 1부: 독일마을 주민 토크쇼
 - 2부: 달걀 릴레이 달리기
 - 3부: 독일마을 주민 애장품 옥션
2. 또 가고 싶은 남해 - 재방문 여행자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사전 투표를 통해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남해의 명소 3곳을 선정 후,
'재회의 밤' 달걀 릴레이 달리기에서 우승한 팀이 결정

GERMAN VILLAGE TOUR

1.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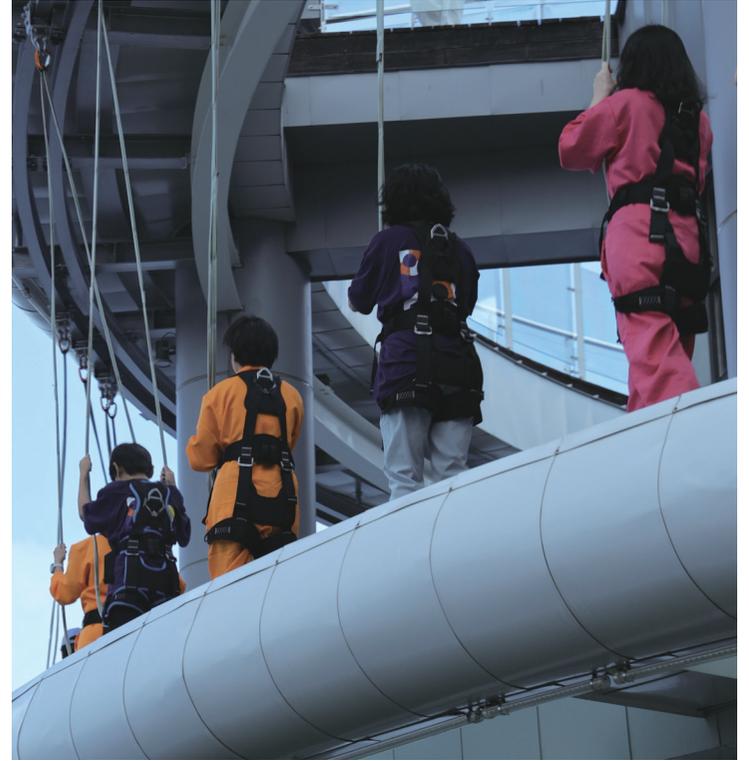
2박 3일 베이스캠프 미리보기 & 마을 주민에게 듣는 독일마을 이야기
2. 파독전시관 관람
3. 전통의상 체험 및 킨더폴카 원데이 클래스

LOCAL ACTIVITY

1. 남해 바다 요트 체험
2. 물미해안전망대 클리프 워크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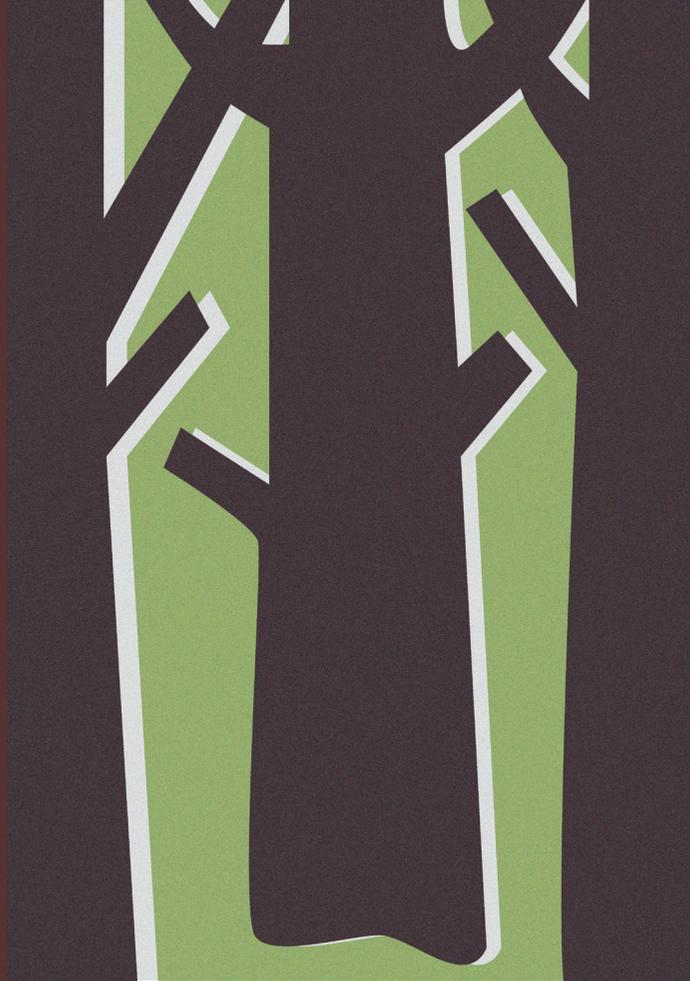




SUMM SUMM, SYHM

CAMP. 2

2-2. 두 번째 캠프



LEARNING 2

쉼의 방식

CAMP 2. 숨숨, 쉼

두 번째 캠프

남해 자연에서의 ‘쉼’을 통해 나 자신을 포용하는 법을 배운 <Camp 2. 숨숨Summ Summ, 쉼>. 남해는 ‘남쪽 바다’라는 이름처럼, 바다가 가진 시원함과 오밀조밀한 마을이 주는 따스한 기운을 모두 가진 곳입니다. ‘잘 쉬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쉼을 스스로 탐색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배움. 참가자들이 일상과 고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발견하는 캠프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때로는 정적이고, 때로는 동적으로. 남해와 독일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휴식을 차곡차곡 눌러 담았습니다. 하우스 투어를 통해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리 방조어부림 숲 아래에서 몸동작 치유 워크숍을 진행하며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이 있는 밤’에는 독일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앉아, 독일 맥주와 함께 신나는 재즈 공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스페이스 미조에서 싱잉볼 명상을 하며, 공명을 통해 몸을 이완하고 정적인 쉼을 경험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 구성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장치까지 세심하게 기획했습니다. ‘쉼’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몸에 붙이면, 오롯한 쉼의 시간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참가자 굿즈도 배부되었습니다. 동적인 쉼과 정적인 쉼의 방법이 교차되며, 참가자들은 나에게 어울리는 휴식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CAMP 2. 숨숨, 씬 SUMM SUMM, SHYM	FOR 휴식이 필요한 직장인 30-40대
DATE 25. 09. 12(금) - 14(일)	LEARNING POINT 씬의 방식

MAIN PROGRAM

- 독일마을 하우스 투어 & 차담회
‘독일 사람들의 씬’에 대해 마을 주민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차담회
- 음악이 있는 밤
1부: 독일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퀴즈쇼
2부: 독일 맥주와 함께 즐기는 어쿠스틱 공연

GERMAN VILLAGE TOUR

-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2박 3일 베이스캠프 미리보기 & 마을 주민에게 듣는 독일마을 이야기
- 힐링 오르골 체험
독일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오르골 만들기 체험
- 파독전시관 관람

LOCAL ACTIVITY

- 편백 숲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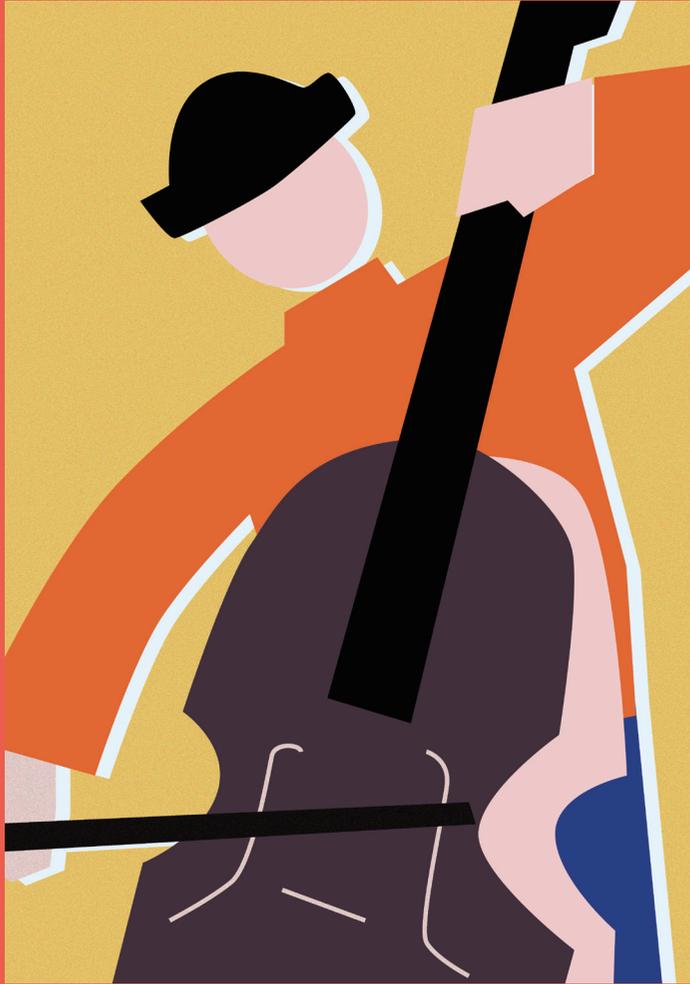




TICK TACK, 젊다 아이가

CAMP. 3

2-3. 세 번째 캠프



LEARNING 3

나를 위로 하는 법

CAMP 3. 틱탁, 젊다 아이가

세 번째 캠프

인생 2막을 꿈꾸는 은퇴 준비생들이 모여, 자기격려의 마음을 배운 <Camp 3: Tick Tack, 젊다 아이가>. 모든 것이 새로웠던 어린 시절에 비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더 짧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적어보는 시간처럼 말이죠. 3회차 캠프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는 여행입니다.

저녁 행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간에는 독일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독일마을 광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아직 참가자들 사이를 부유하던 어색한 공기는 신나는 공연과 맛있는 독일 맥주, 소시지 덕분에 금세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파독 광부·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는 퀴즈를 통해 기념품을 나누는 시간은 독일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배를 타고 ‘노도’에 들어가 내 삶을 담은 시를 적어 보고,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완성된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해 여행에서 느낀 점,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고의 마음 등 코끝이 찡해지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노도 문학 워크숍을 이끌어주신 동화책 <마늘꽃> 최서영 작가님은, 섭외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늘꽃은 마늘의 쓰임이 다하면 피는 꽃이에요.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시기엔 오히려 꽃이 피거든요. 저도 꼭 함께하고 싶어요”. 마파람 사진관의 양희수 작가님 역시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꼭 잘 해드리고 싶어요.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 드리면 어떨까요?”라며 선뜻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사진을 촬영한 뒤 보정하고, 인화하여 액자에 담는 수고스러운 일이었지만 인생 2막을 앞둔 누

군가의 지금을 기록하는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덕에 세 번째 스쿨링캠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한 참가자분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가족과도 더 돈독해지고요. 참가자들은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AMP 3.	FOR
틱택! 젊다 아이가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TICK TACK! 젊다 아이가	50-60대
DATE	LEARNING POINT
25. 10. 31(금) - 11. 02(일)	나를 위로하는 법

MAIN PROGRAM

1. 브라보! 마이 라이프
 - 1부: 파독 광부·간호사 선생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 2부: 독일마을 퀴즈
 - 3부: 독일맥주와 함께하는 밴드 공연
2. 노도 문학 워크숍
 - 남해 섬 안의 섬, 노도 여행. 시조 전문가와 함께 한적한 섬을 거닐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詩쓰시 워크숍
3. 독일마을 사진관
 - 마파람사진관과 함께 하는 독일마을 스냅 촬영

GERMAN VILLAGE TOUR

1.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 2박3일 베이스캠프 미리보기 & 마을 주민에게 듣는 독일마을 이야기
2. 파독전시관 관람
3. 독일마을 상점가 자유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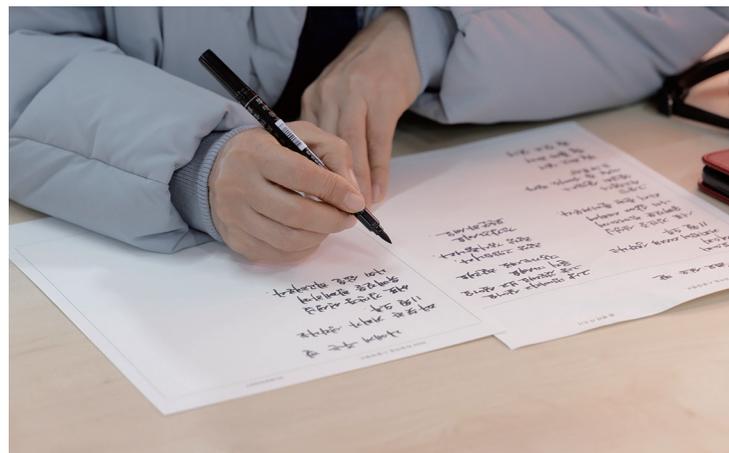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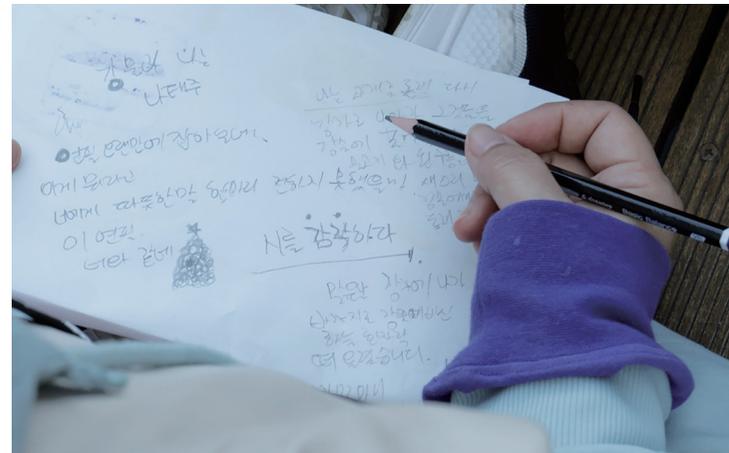
LOCAL ACTIVITY

1. 편백 숲 산책









ZICK ZACK, 니랑 내랑

CAMP. 4

2-4. 네 번째 캠프



LEARNING 4

함께 하는 법

CAMP 4. 찌쯔짜쯔! 니랑 내랑

네 번째 캠프

한국인과 외국인, 독일마을 주민이 문화를 교류하며 ‘다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Camp 4. 찌쯔짜쯔 Zick Zack, 니랑내랑>. 남해 독일마을은 ‘도전’과 ‘포용’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외국 여행도 쉽지 않았던 1960년대, 독일이라는 먼 유럽 땅으로 건너갔던 파독 광부·간호사. 한국으로 돌아와 독일마을에 서로 다른 집을 짓고 살며, 마을의 일원으로 맥주축제 운영과 합창단 등 다양한 포용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독일마을을 배경으로 출신, 성별, 성장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이해와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장소인 ‘독일마을’이라는 공간을 함께 여행하고 그 낯섬을 함께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배움의 구조가 됩니다. 마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2박 3일을 지낼 독일마을에 대해 알아보고, 하우스 투어를 통해 독일마을에 거주하고 계신 파독 간호사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마니또를 위한 초상화를 그리고, 독일과 한국의 놀이 문화를 배우는 운동회도 진행했습니다. 독일 전통 춤인 킨더폴카를 배우며 서로 어깨와 손을 맞대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러하듯,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반에 배정되지만 ‘나이’나 ‘공동 관심사’ 하나만으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캠프 참가자들 역시 공통점으로 연결되고, 낯선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함께 걷고, 보고, 배우고,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에게 작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 소통과 이해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CAMP 4.

찌뜨짜뜨: 니랑 내랑
ZICK ZACK! 니랑 내랑

FOR

타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대학생

DATE

25. 11. 07(금) - 11. 09(일)

LEARNING POINT

함께 하는 법

MAIN PROGRAM

1. 나의 마니또 초상화 그리기
마니또 얼굴 그리기 & 선물 교환
2. 독일×한국 미니 운동회
독일과 한국의 놀이문화를 배워보고 마니또와 팀이 되어 즐기는
스쿨링캠프만의 미니 운동회

GERMAN VILLAGE TOUR

1. 파독파독 끝없는 독일마을 이야기 투어
2박 3일 베이스캠프 미리보기 & 마을 주민에게 듣는 독일마을 이야기
2. 독일마을 하우스 투어 & 차담회
3. 힐링 오르골 체험
4. 킨더폴카 원데이 클래스
5. '기억의 밤' - 독일마을 주민 토크쇼

LOCAL ACTIVITY

1. 물미해안전망대 클리프 워크 체험











나만의 한 페이지

3

스쿨링캠프의 기억



나만의 한 페이지

스쿨링캠프 기록북 워크숍

네 번의 캠프 동안,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스쿨링캠프 기록북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2박 3일 동안 마음에 남은 장면, 혹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스스로 기록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캠프 동안 자연스럽게 모아온 다양한 재료—식당에서 받은 명함, 안내 전단지, 스쿨링캠프에서 제작한 인쇄물, 숲에서 수집한 자연물들—을 꺼내어 오리고 붙이며, 정해진 형식 없이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워크시트를 완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그린 장면에는 자연스럽게 스쿨링캠프의 다양한 활동과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3회차 캠프에서는 캠프 특성에 맞게 기록북 워크숍 대신 ‘시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노도의 풍경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 자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 줄의 시로 적어 내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여러 장의 시와 그림은, 서로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과 감정이 모여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들은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한 페이지 찾아보기

1회차
(p.66-96)

p. 66 강부일
p. 67 강연주
p. 68 김경희
p. 69 김지울
p. 70 김지현
p. 71 김형근
p. 72 박규선
p. 73 박상욱
p. 74 박서아
p. 75 박서준
p. 76 박수경
p. 77 박신여
p. 78 박재원
p. 79 박주원
p. 80 송은미
p. 81 신민서
p. 82 신민호
p. 83 유은향
p. 84 유철현
p. 85 이미연
p. 86 이소영
p. 87 이수빈
p. 88 이주은
p. 89 이호경
p. 90 임은희
p. 91 임진주
p. 92 정우연
p. 93 정이습

INDEX

p. 94 정이준
p. 95 조형미
p. 96 한승희

2회차
(p.97-127)

p. 97 김기남
p. 98 김동준
p. 99 김보현
p. 100 김종우
p. 101 김지현
p. 102 김진훈
p. 103 김호현
p. 104 노희아
p. 105 루시아
p. 106 문유민
p. 107 박다혜
p. 108 박세라
p. 109 박요한
p. 110 박정민
p. 111 서인호
p. 112 안소영
p. 113 오유라
p. 114 우성환
p. 115 유진
p. 116 이동건
p. 117 이민호
p. 118 이조은
p. 119 이혜도
p. 120 장혜진

p. 121 전민호
p. 122 정문희
p. 123 조선명
p. 124 최승우
p. 125 최승원
p. 126 최영옥
p. 127 허숙영
p. 128 홍수연

3회차
(p.129-160)

p. 129 강정현
p. 130 강태임
p. 131 김만년
p. 132 김수진
p. 133 김용삼
p. 134 김윤정
p. 135 김중원
p. 136 문경미
p. 137 박정신
p. 138 박진화
p. 139 서정민
p. 140 송강희
p. 141 심명옥
p. 142 안병희
p. 143 안종일
p. 144 안진희
p. 145 양애진
p. 146 오진숙
p. 147 윤영례

p. 148 이경아
p. 149 이미경
p. 150 이상윤
p. 151 이선자
p. 152 이순옥
p. 153 이순희
p. 154 이연숙
p. 155 임정희
p. 156 임정희
p. 157 전금순
p. 158 정경민
p. 159 정영봉
p. 160 정영우
p. 161 조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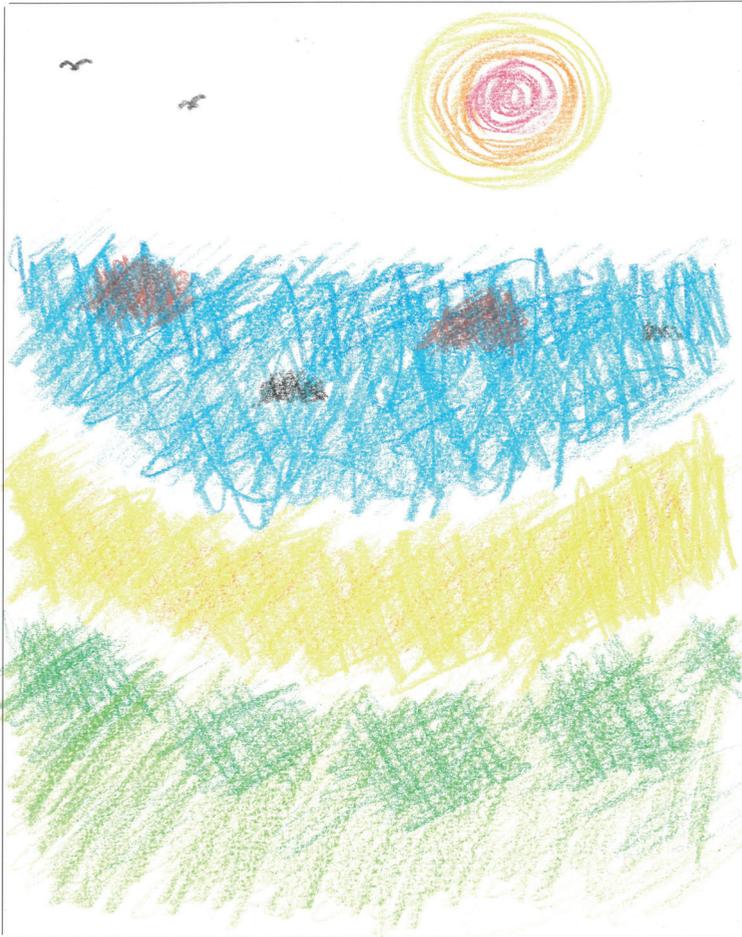
4회차
(p.162-188)

p. 162 강혜진
p. 163 김은솔
p. 164 김지훈
p. 165 김한설
p. 166 남선우
p. 167 노천일
p. 168 문승희
p. 169 문태이
p. 170 박다연
p. 171 박민식
p. 172 박민정

p. 173 박찬민
p. 174 사보미
p. 175 성정환
p. 176 우듬지
p. 177 윤상혁
p. 178 이경진
p. 179 이상현
p. 180 이영수
p. 181 이채희
p. 182 정재원
p. 183 조은지
p. 184 황다운
p. 185 황신형
p. 186 Ainhoa
아이노아
p. 187 Hortense
오르탕스
p. 188 Léa
레아
p. 189 Margaux
마고
p. 190 Salomé
사로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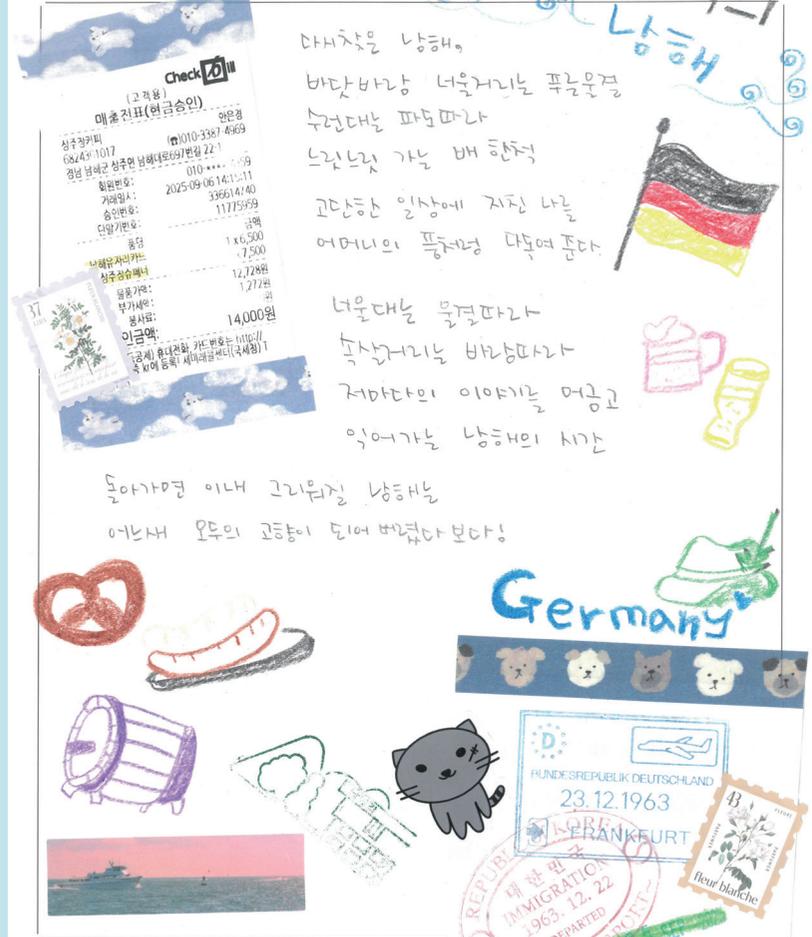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강복일
 작업명: 은모래이치
 작업 노트: 아다타 모래, 송림이 아물어진 모습이 인상깊었네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강연주
 작업명: 기억의 낭송
 작업 노트: 낭송의 바다와 바람을 그리움과 담아냈습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김경희
 작업명: 붉은 지붕
 작업 노트: 花田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김예
 작업명: 독일마을 소감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IN NamHae♡SADO Travel

2025.9.5 ~ 9.7

Halo du, 이야기!
다시 온 남해 hamo

여기가 한국?
비행기 타고 독일 도착?!

이삿 고양이

문젠하우스

YUJA

이름: 김지현
작업명: 또, 남해
작업 노트: 다시 오게 된 남해, 독일마을, 여행 기억 저장소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Guten Tag! ♡♡

가쪽 한마디

- 아빠: 힐링 완료.
- 엄마: 남해 대박이네요.
- 지동: 또 보고싶어요.

여행지: 남해(독일마을)

여행기간: 2025.9.5 ~ 9.7

함께한 가족: 김형근, 이요정, 광연

기억에 남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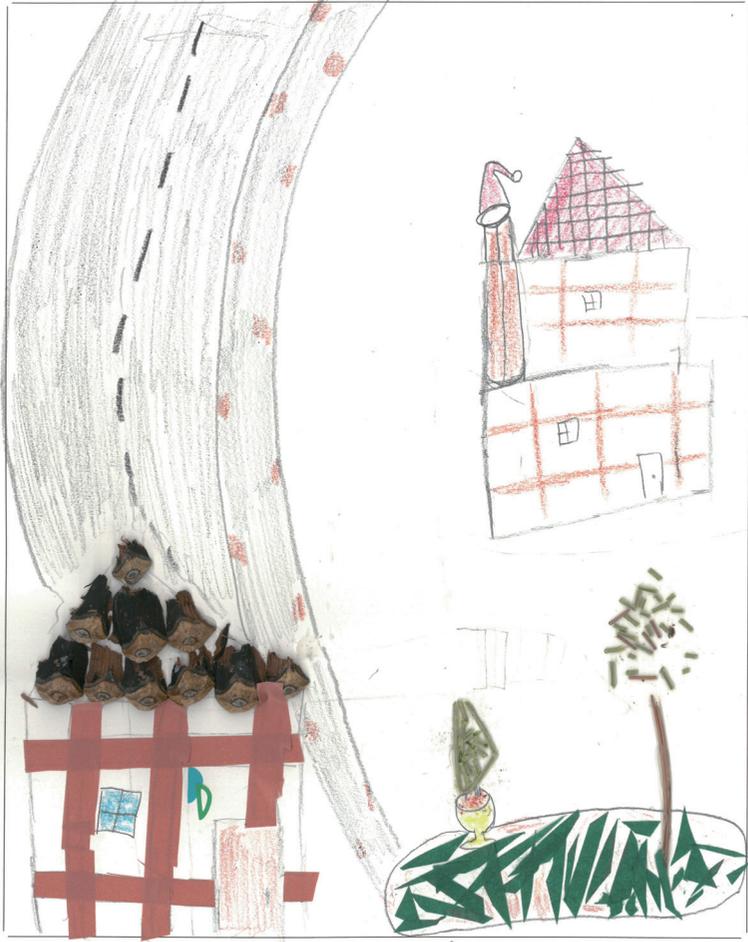
- 알로만족 특효음 질들과 사진찍기
- 바다 전망 보며 산책하기
- 독일마을 박물관에서 피크닉 배우기
- 물대건당대 클리프 쿠키 체험

From: _____

이름: 김형근
작업명: 남해 독일마을 기록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콜링캠프

WORKSHEET



이름: 박귀선

작업명: 숲 마을 지붕

작업 노트: 숲 마을 지붕을 만들기 위해 이 나무를 잘라 냈다.

2025 독일마을 스콜링캠프

WORKSHEET



이름: 반상욱

작업명: oktoberfest in German Village.

작업 노트: 산, 바다, 강, 자연과 함께 있는 독일 마을 스콜링 캠프. 맛있는 핫도그와 시원한 맥주. 이번 여름 oktoberfest 같은 축제입니다.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SCHOOLING CAMP

DO NAM HAE

● DAY 1 25.09.05

- 피터 전담 만남
- 남해 바다 요트 체험
- 재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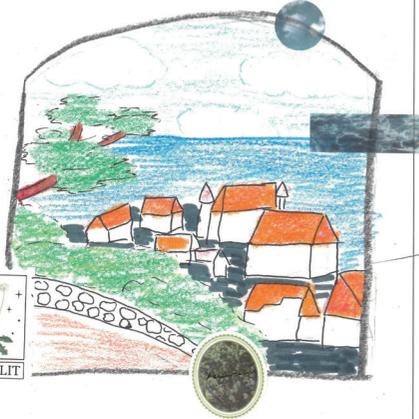
● DAY 2 25.09.06

- 푸른 영피제 푸링
- 풀의 전담대 클리프 워크
- 칸디 플라잉

● DAY 3 25.09.07

- 두남매, 남해 기록물 워크숍

Welcome Back!
 다시 찾은 독일마을에서 써서
 '한대의 마음' 할로 두, 하모



● 다시 찾은 남해 독일마을!

● 독일 영피제 푸링
 풀의 전담대 클리프 워크 등
 많은 경험을 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일마을
 # 할로 두, 하모
 # 25년 9월

이름: 박지아

작업명: 2학년 2반 2번차 독일 마을 여행

작업 노트: 2학년 2반 2번차 독일 마을 여행에서 있었던 일과 여행 풍경등을 그렸다. 감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이름: 방서경

작업명: 제 13회 남해 맥주 축제

작업 노트: 사람들이 맥주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즐거웠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남해군 상동면 독일로 92 ☎ 055-847-8877

독일마을

독일마을이 실제 독일에서 거주하던 마을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속 작은 독일 을 만들었다. 지난 2009년 완공 이후 독일마을의 하안벽과 오션리조트는 남해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다. 독일 마을이 미국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매년 10월경 독일마을 경장에서 열리는 독일마을 연주회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축제이다.

Schloss - Berlin
독일마을
공정관도 빌딩
상용관 독일로 74-20

독일마을 「 南 海 賓 館 」
방문을 환영합니다.

Deutsches Dorf begrüsst seine
Gäste herzlich Willkommen.

독일마을에서
전자 삼겹살에서
아침 식사를 한곳

독일마을에
남해바래길
걸으며

남해관광플랫폼에서
축! 당첨!

남해바래길

이름: 박수경

작업명: 포항, 계방 (아름다운 당고 여행을 즐기자)

작업 노트: 아이와 함께 남해를 다시 찾으며

삼주 안보려 캐번에서
아이와 손잡고 걸으며
주길

유리안배
남해유리안배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이벤트 장소로
29기 안보려 29기
사이트에서 이벤트 참여하시

집에 가전
남해 상공권으로
남해 기념품 사기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남해바래길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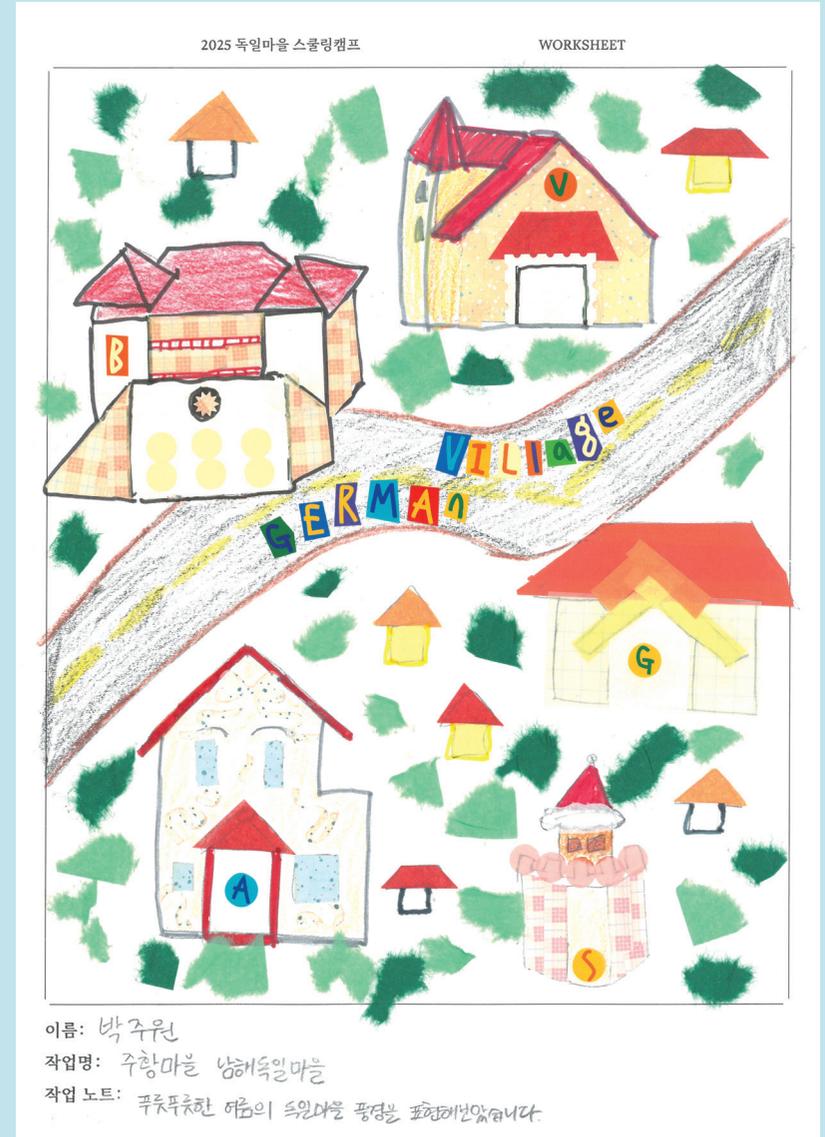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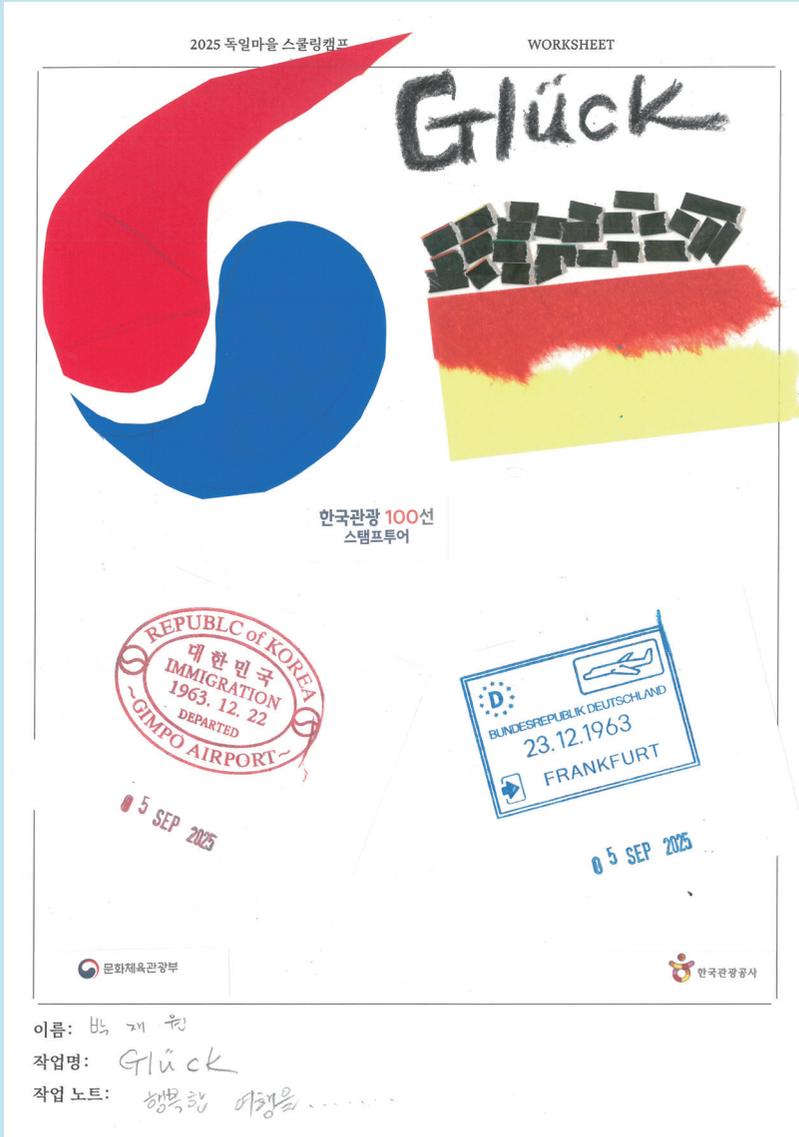
재희의 밤
#HALO DU, HAMO / 할로 두, 하모

다시 찾은 독일마을의 추억을 소환하여
재희의 밤을 가졌다.
작년 독일의 간헐사나 광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순부부를 만나니 반가웠다.
그밤이 입주민부들의 독일에서의 삶과 애환은
듣으며 즐거운 밤을 보냈다.

이름: 박신여

작업명: 다시 찾은 독일마을

작업 노트: 추억은 티새기며



2025 독일마을 스텝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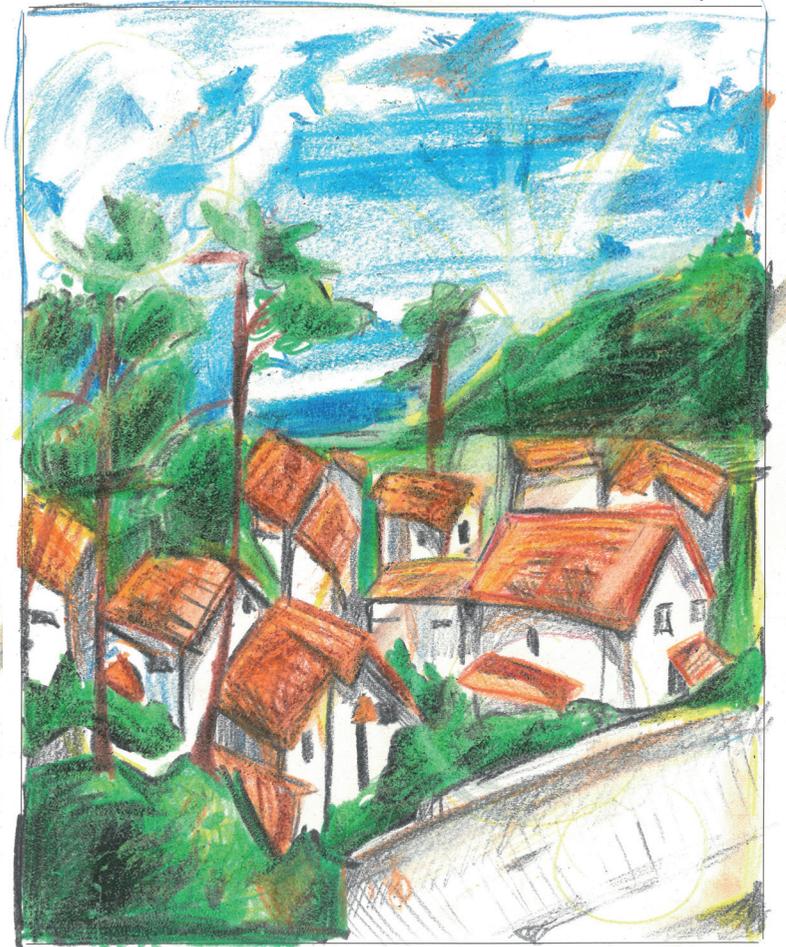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송 은미
 작업명: 독일마을의 바다
 작업 노트: 독일마을에서 보는 바다 이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바다지 않을까요

2025 독일마을 스텝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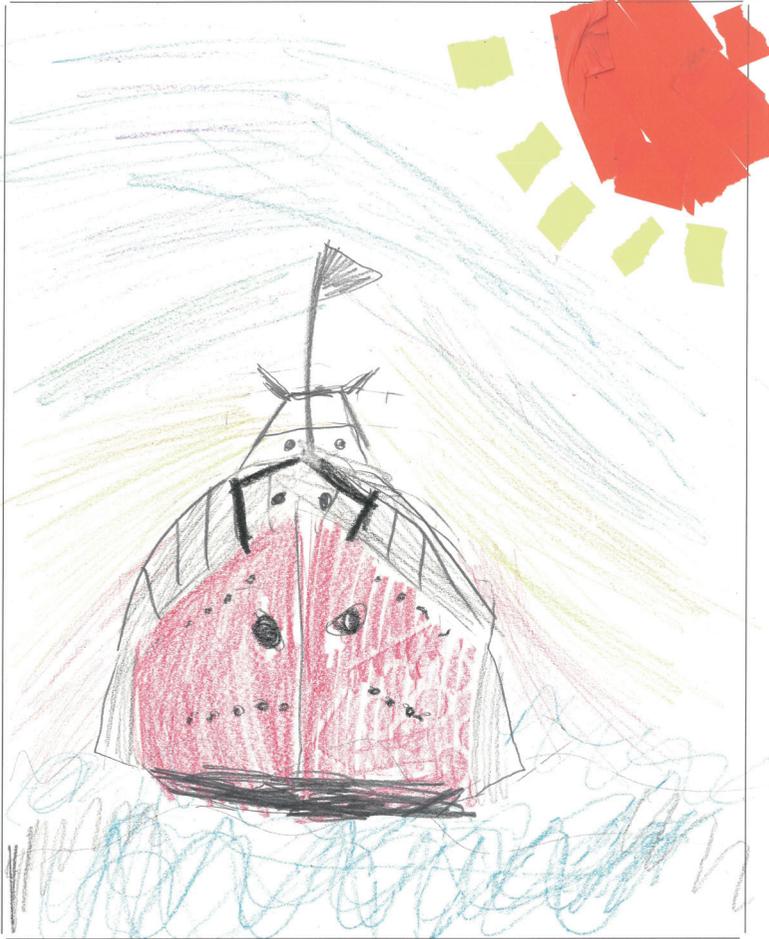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신민서
 작업명: 독일마을
 작업 노트: =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이름: 신민호
 작업명: 배
 작업노트: 캠프 프로그램 때 받았던 배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겔베하우스

CAMP 1. 할로 두, 하모 Halo du, ha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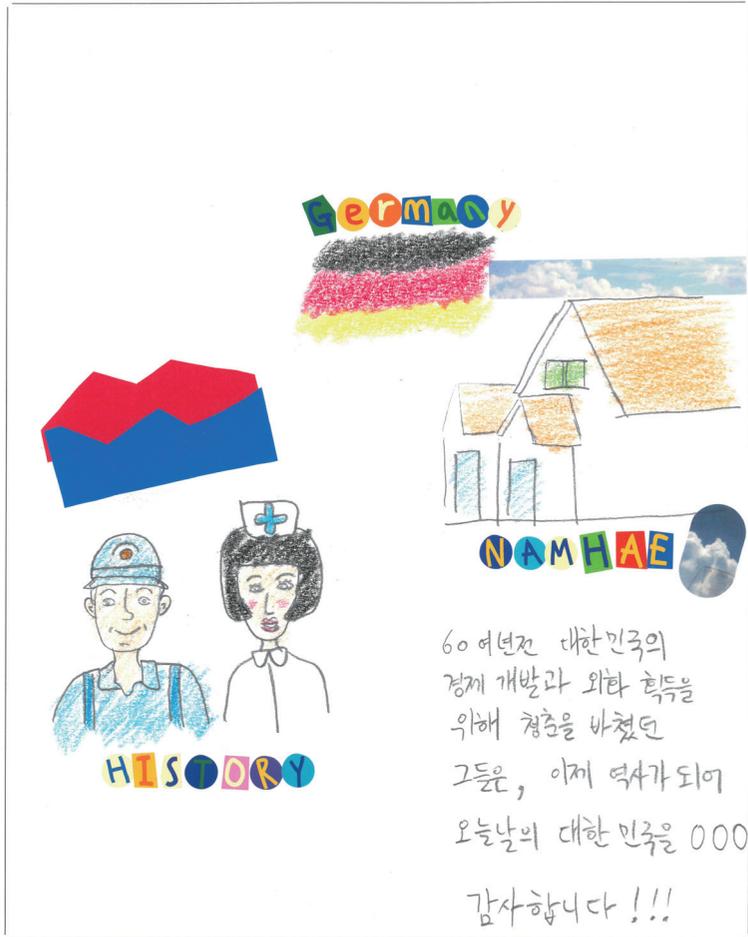
거닐기만 해도 기분 좋았던 남해 독일마을
 요트투어, 클리프워크 하면서 바라 본 남해 바다
 독일옷 입고 신나게 배웠던 킨더플라
 햇살 뜨거웠던 삼주 은모래 비치
 슈바이칸센, 규짚, 유자 에이드링, 브락 부어스트... 😊 🍀 ❤️

N o m h a e i n M e m o r y 🍯

이름: 유은향
 작업명: 내 기억 속 남해 독일마을
 작업노트: 남해 스킨링 캠프 2박3일 끝나고 내 마음 속에 함께 남은 것들을 표현했어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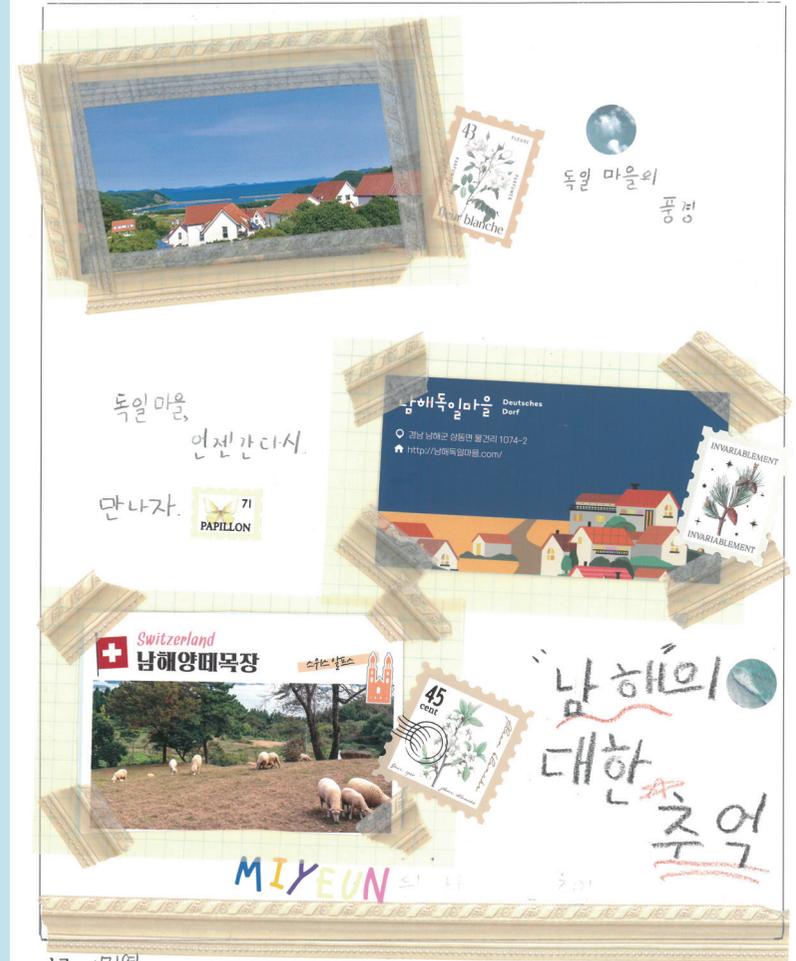
이름: 유철현

작업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작업 노트: 남해 독일 마을 방문을 통해 파독 근로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이미연

작업명: 나의 독일마을 일지

작업 노트: 없음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NAMHAE DIARY SO YOUNG

나는 패키지 여행이 익숙하지 않고 내향적인 성향이라 출발 전까지는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막상 함께 여행을 시작하니 정말 오랜만에 다양한 분들을 조건 없이 만나 교류하면서 잊고 지내던 인류애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느꼈다.

특히 첫날 밤 재벌의 방에서 노안희장님과 나는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파독 생활을 이어가셨는지 그 시련의 여정이 자부심과 열정으로 말씀해주시는 모습에서 큰 존경심이 들었다.

어른들의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귀해졌는데 이번 노안희장님과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은 넘어서 삶의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컨디션과 컨소도 처음엔 민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춤을 추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시절로 돌아간듯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역사냥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는 과정이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 여행이란 말씀하신 포퓰러 개방성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을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은 통해 느낀 감동과 따뜻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다. 꼭 다시 가족들과 함께해서 똑같은 모스크로 죽기 살피는 생각이 든다.

귀한 여행은 준비해주신 소도시민들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3 Days In Namhae

이름: 이소영

작업명: 남해 다이어리

작업 노트: 2박3일 간의 남해 스쿨링 캠프를 하며 느낀 점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아누빈

작업명: 반갑다 남해! 고맙다 남해!

작업 노트: Beautiful beings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이주은
 작업명: 개방성
 작업 노트: 킨더플카 원데이 클래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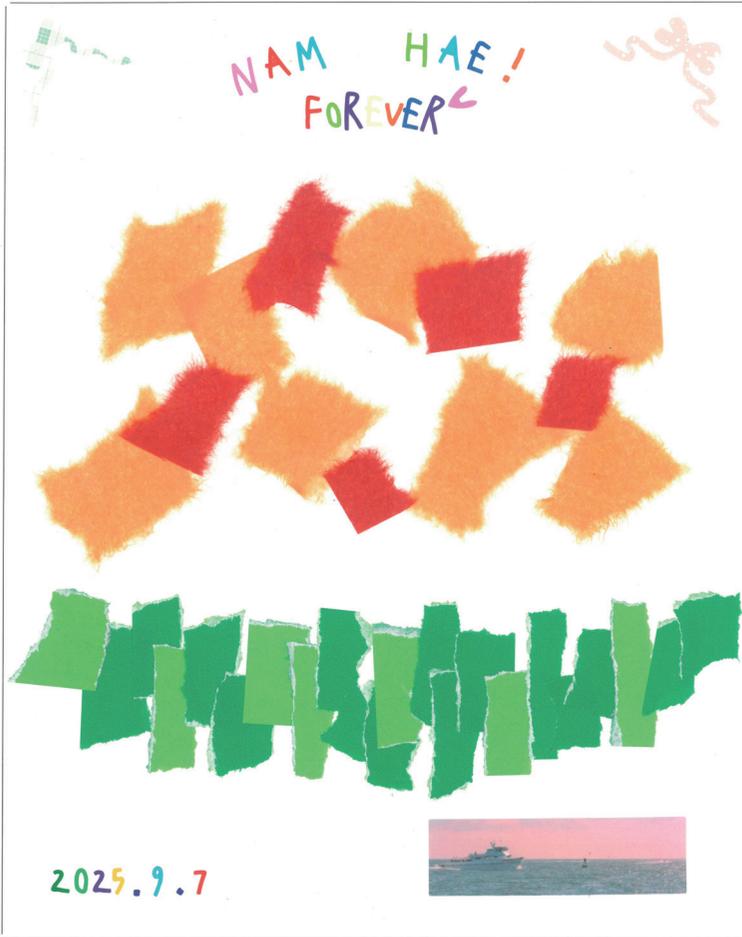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이호경
 작업명: 우리의 날자주
 작업 노트: 스쿨링캠프, 즐겁다 장소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임은희

작업명: 남해 포에버

작업 노트: 독일 마을과 물건 방과후부림을 글자구 기법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24

WORKSHEET

CAMP 1. 할로 두, 하모 Halo du, hamo



이름: 임은희

작업명: 독일마을 여름방학

작업 노트: 여름의 독일마을 추억

12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정우민

작업명: 내년에 '도오리'는 스쿨링캠프 (feat. 독일마을)

작업 노트: 2026년에 건강하고 즐겁게 스쿨링캠프에 와실거니와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 받기를 기대합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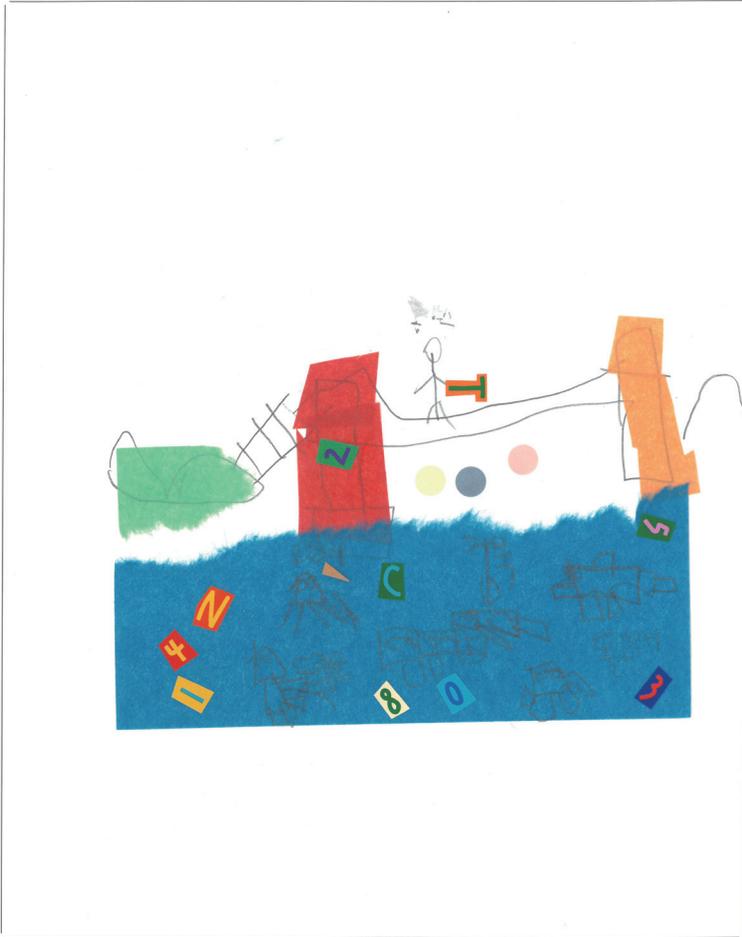
이름: 정이동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정이주
 작업명: 할로 두 하모
 작업 노트: 즐거운 생활 디자인드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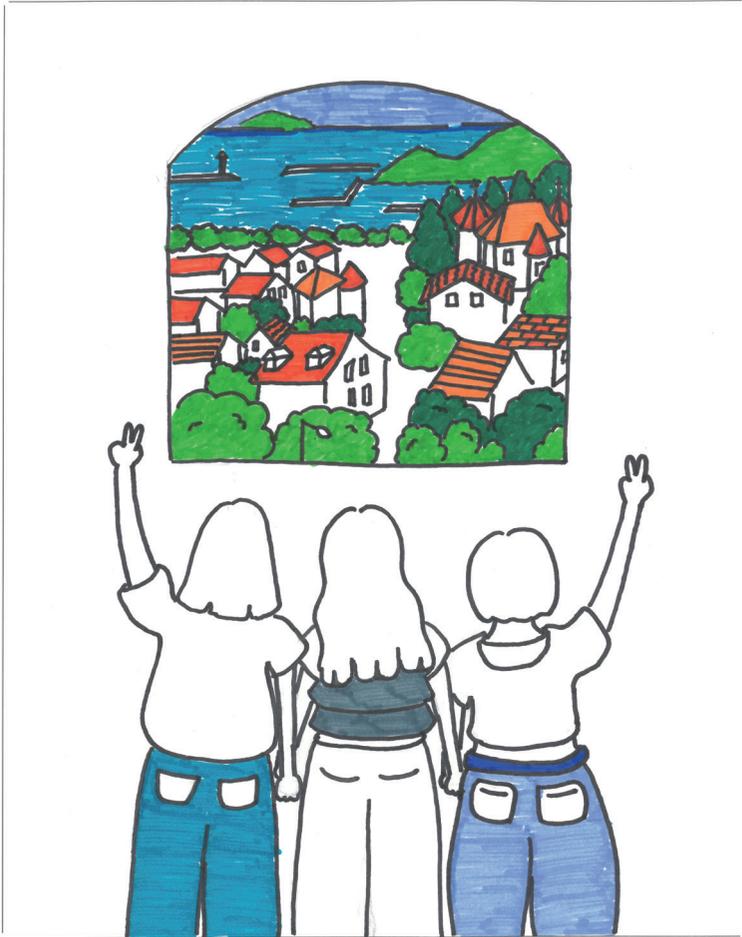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조형미
 작업명: 나의 첫 남해 :
 작업 노트: 아름다운 풍경과 여원이 남해는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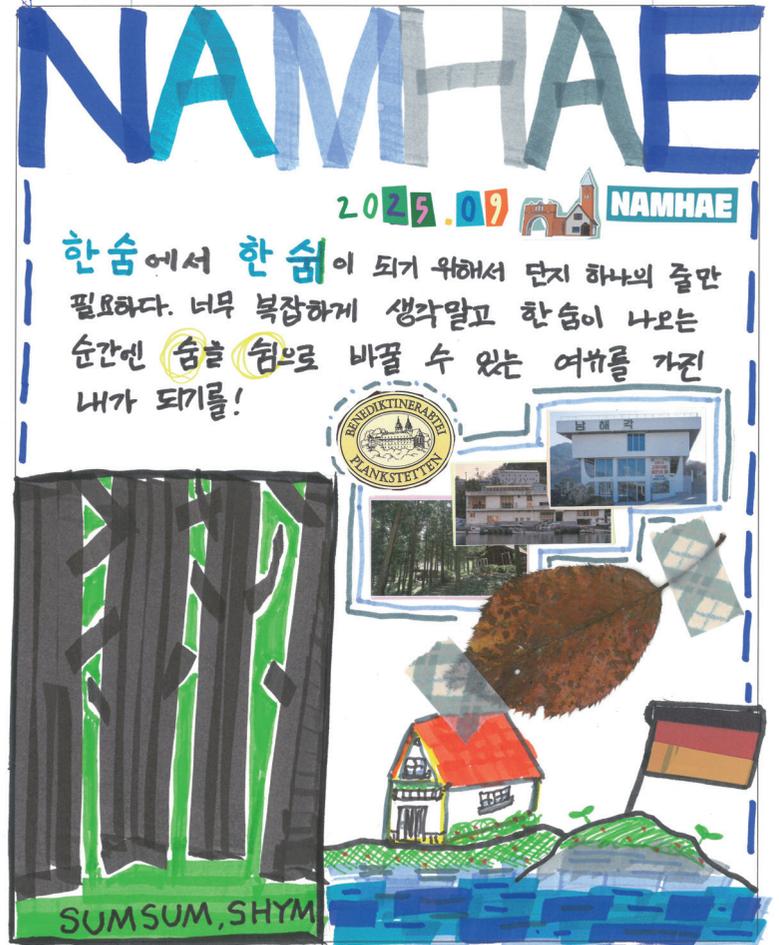
이름: 한승희

작업명: 청춘 - 독일마을에서의 우정

작업 노트: 독일어를 공부할 때 정말로 힘든 순간 시범의 뒷모습 사진을 그렸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김 기남

작업명: 숨과 씬

작업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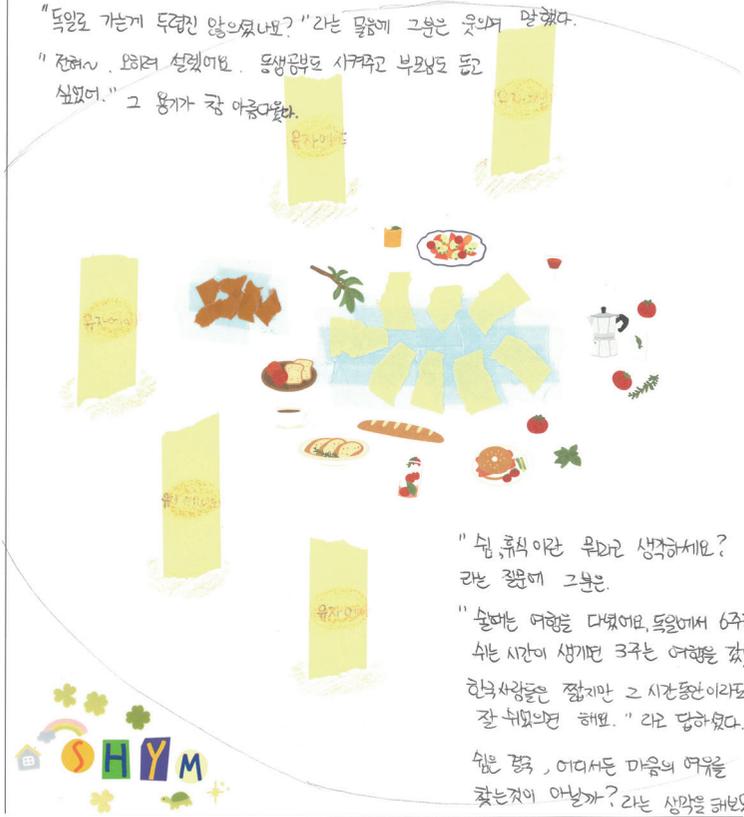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파득 간호사였던 윤의 집을 방문했다.
사과와 빵, 견과류, 유자메이드를 너어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집도 참 예뻐다. 독일로 가게 된 이야기부터 나중에 독일 마을에 정착한 사연까지 들을 수 있었다.

"독일로 가게 된 걸 잊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전혀~. 오히려 설렜어. 문생공부도 시켜주고 부끄럼도 듣고 싶었어." 그 용기가 참 아름다웠다.



"쉽, 휴식이란 뭐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술마는 여행을 다녔어요. 독일에서 6주간
쉬는 시간이 생기면 크루는 여행을 갔는데!
한국사람들은 짧지만 그 시간동안이라도
잘 쉬었으면 해요." 라고 답하였다.

쉽은 결국, 어디서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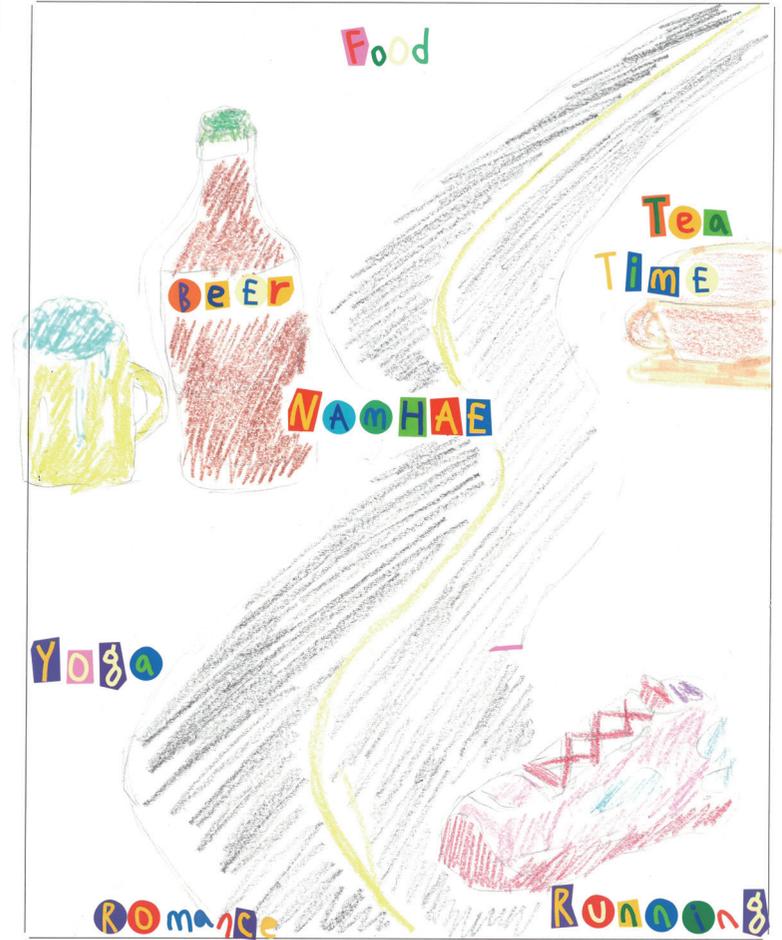
이름: 김동준

작업명: 환대

작업 노트: 식탁위에 맛있는 음식들과 따뜻한 이야기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김보현

작업명: 길위에서 아득한 밤의 리듬들을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CAMP. 2 숨숨, 씬

[영수증] 베를린리크리엔
838150-114 / 한화점 / 010-6837-1828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67 지하층

영수증 # 20250913-10090 포스 ID : 10
 테이블 : 테이블아웃 한화점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오마 하트마스칼터훈트 미니	15,000	1	15,000
독일 슈틀렌200그램	16,000	1	16,000
주문합계	31,000		28,182
부가세			2,818
합계 금액 :			31,000

이름: 노희아
 작업명: 남해 독일마을에서.. 나만의 시간
 작업 노트: 영수증 한 장에도 추억이 가득!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LUCIA
 작업명: First Love
 작업 노트: 당신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추억을 남기는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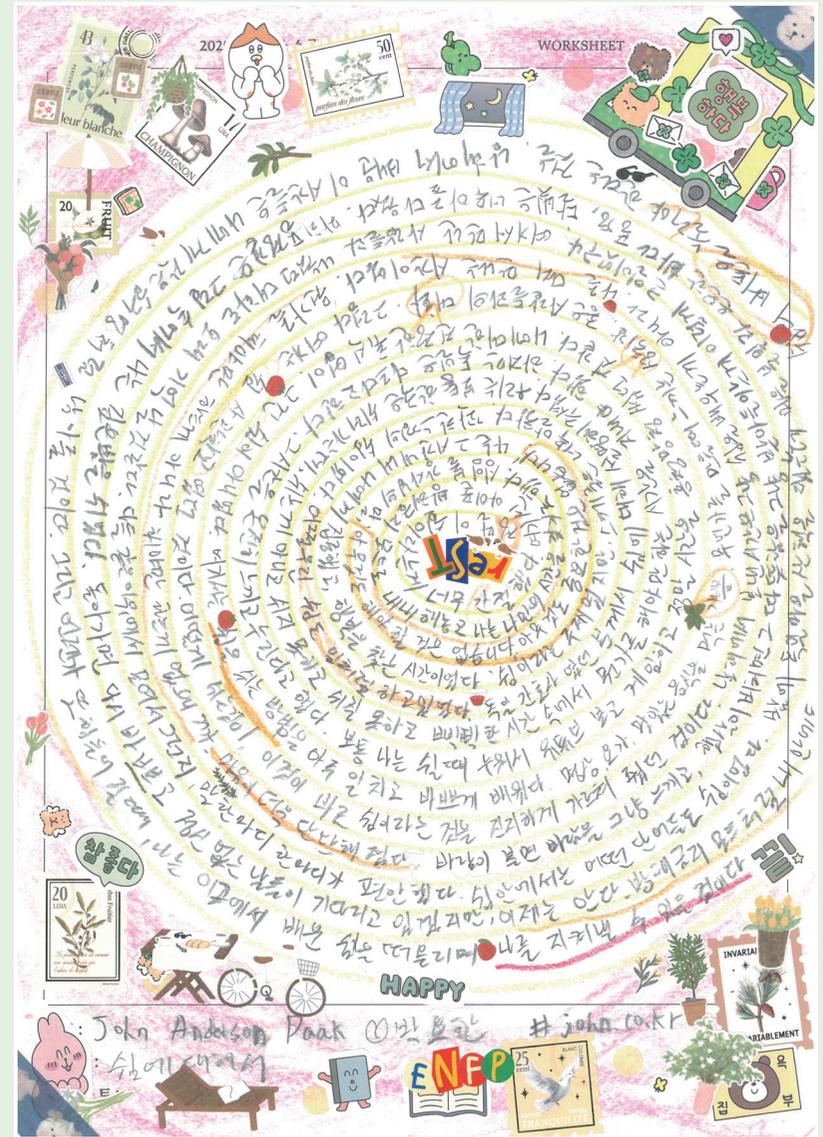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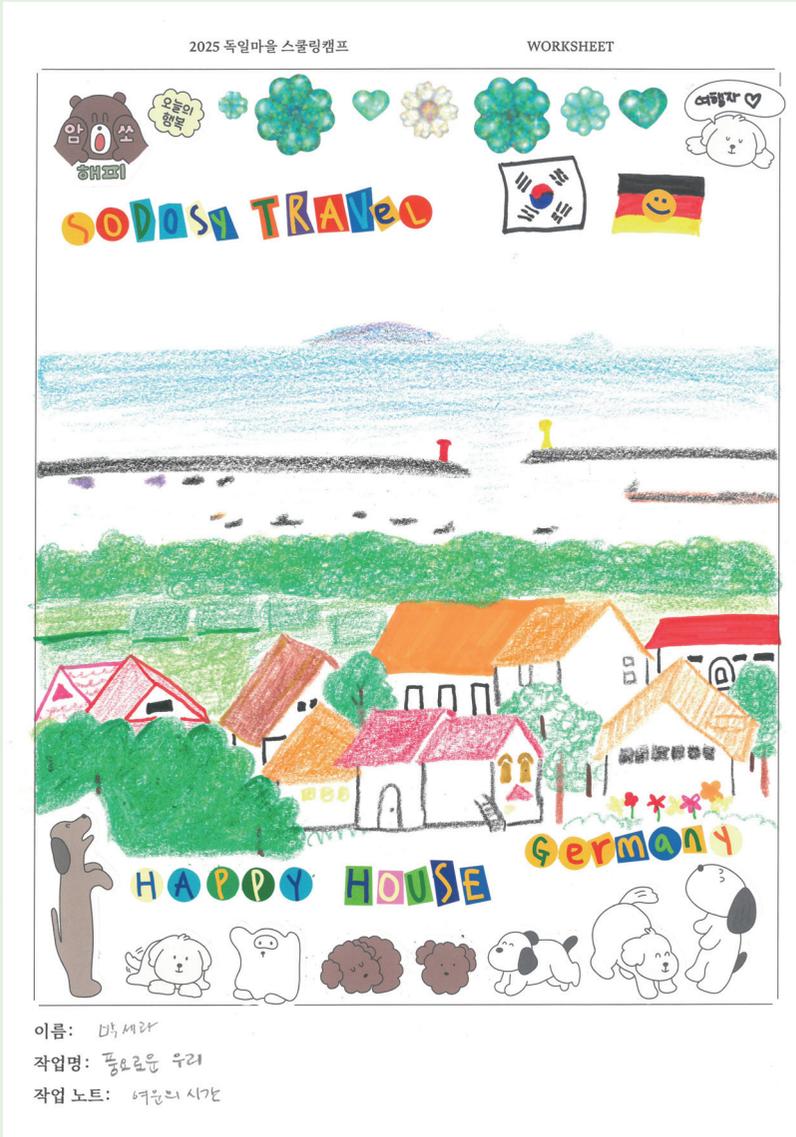
2025.09.12 ~ 2025.09.14 in 남해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문유민
 작업명: 남해에서 난, 해를 본다. 포더른
 작업 노트: 3인동만의 입장을 통해 남해를 구경하고 숨숨 씬게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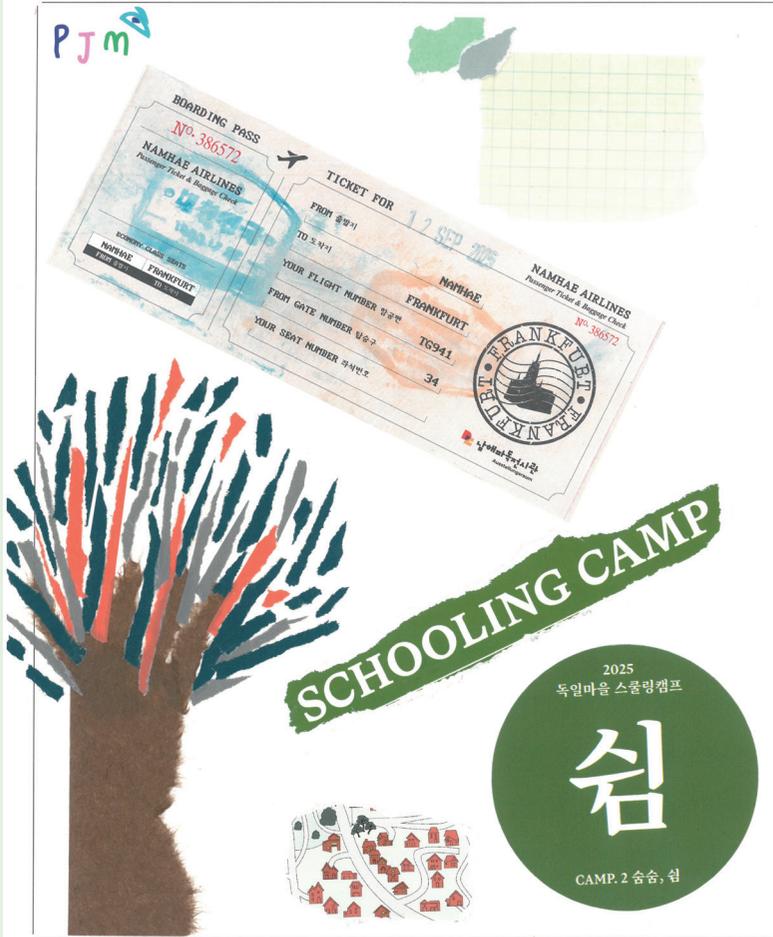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박다혜
 작업명: Stücke von Namhae
 작업 노트: 남해의 기억에 남는 조각들은 모아서 기록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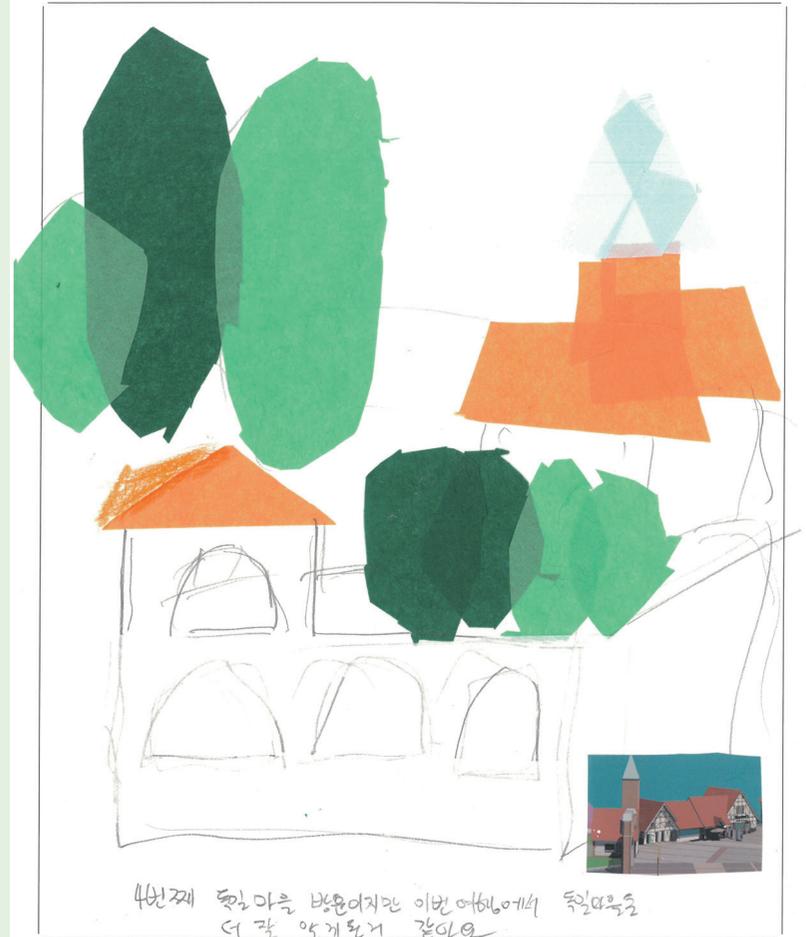
이름: 박정민

작업명: 녹음

작업 노트: 나만의 자연을 표현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4번째 독일마을 방문이지만 이번 여행에서 독일마을을 더 잘 알게 되기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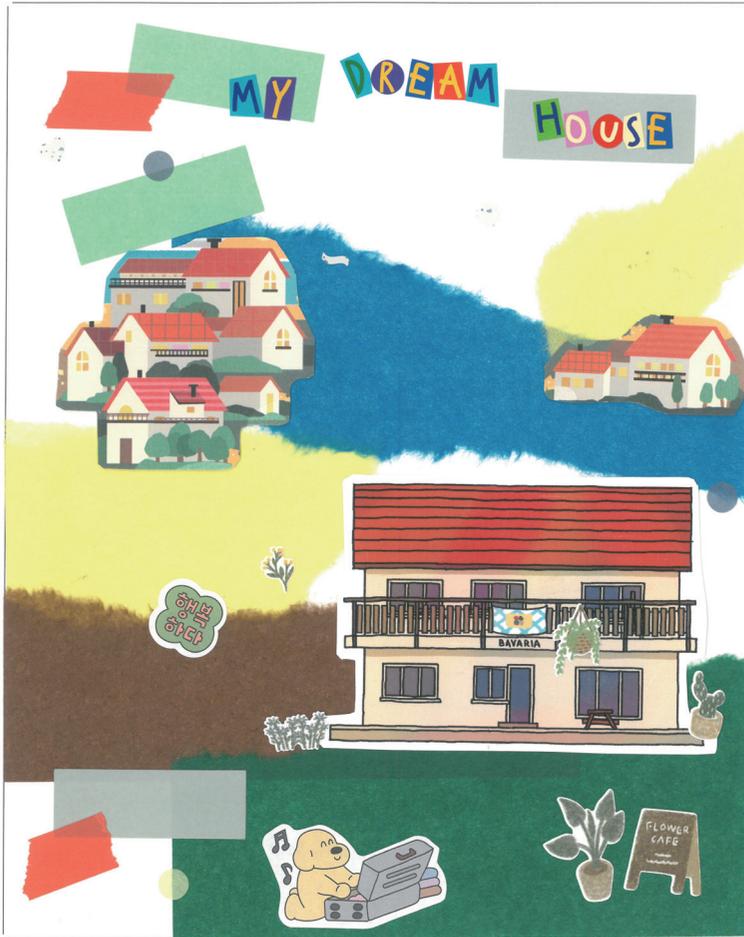
이름: 서민환

작업명: ~~산악~~ 독일마을 체험기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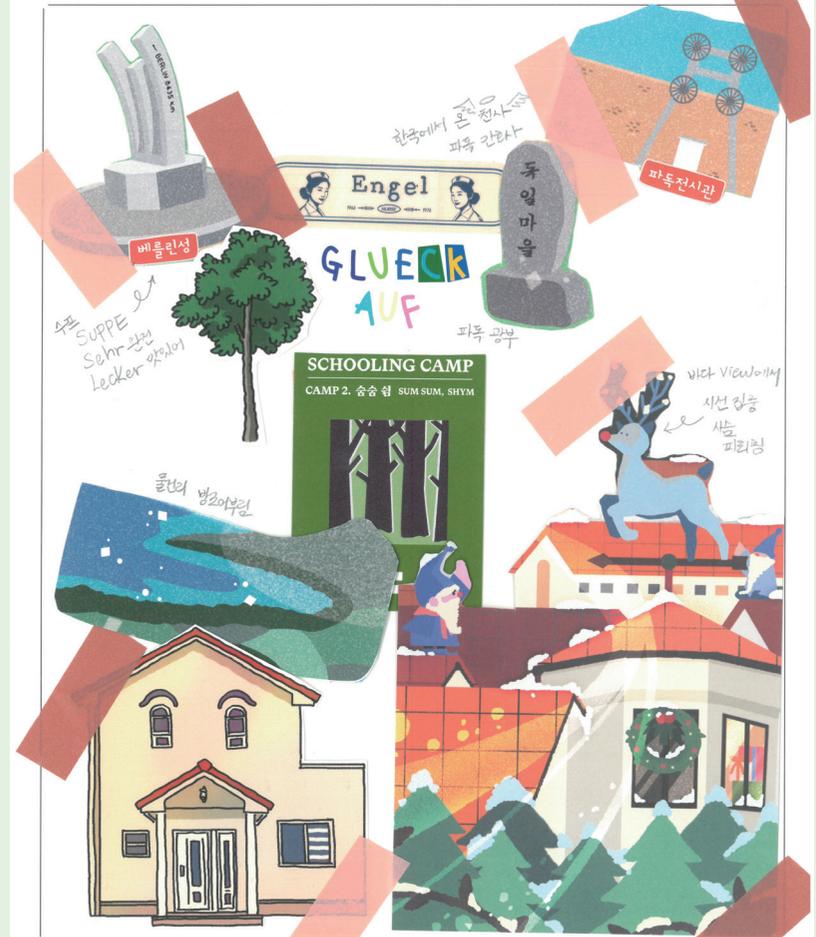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안 포영
 작업명: my dream house ♡
 작업 노트: 드림하우스를 꿈꿔요 나. 동계 캠프의 재미있는 거들을 꾸민 나. 평안하고, 행복한 캠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편지는 많이 가져와.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오유라
 작업명: Glück Auf
 작업 노트: 앞으로 살아갈 내 삶, Glück Auf. 남이끼리의 과학 3일, Glück Auf Auf wiedersehen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남해군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모두의 고향, 우리의 남해를 알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해 주세요. "국민고향 남해"는 여러분과 함께 완성됩니다. 남해는 여러분의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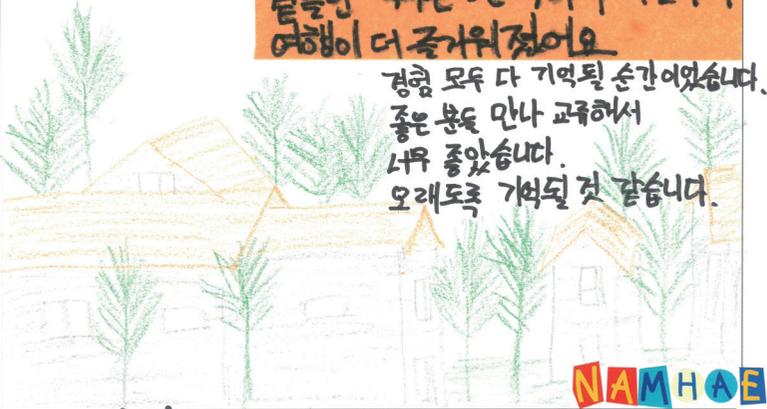
독일마을과 파죽전사관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 거주 교포들의 정착촌으로, 마을의 모든 주택이 독일식으로 지어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파죽전사관에서는 파죽 전투 교포사의 삶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관광안내소 ☎ 상담면 독일로 92 ☎ 055-867-8897
파죽전사관 ☎ 상담면 독일로 89-7 ☎ 055-860-3540

과목 간혹사 용의 가정집을 방문하여 들은 이야기는 삶의 무게와 희생, 생생한 증언이었다.



여름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음식은 정성 가득해 더 깊은 맛이 났어요. 걸들인 맥주는 완벽하게 어울리며 여행이 더 즐거워졌어요.

경험 모두 다 기억될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분도 만나 교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NAMHAE

이름: **우성환**
작업명: **남해여행**
작업 노트: **독일 마을이 너무 좋았어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NAMHAE
SCHOOLING
CAMP

감사한 하루

특별한 하루



행복한 하루



이름: 유진
작업명: 남해의 붉은 지붕과 푸른 들판
작업 노트: 독일 마을에서의 멋진 추억. 비록 다음날의 편지들이 비어있지만 좋았던.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CAMP 2. 숨숨 씬 SUM SUM, SHYM
 2025. 09. 12. (금) - 09. 14.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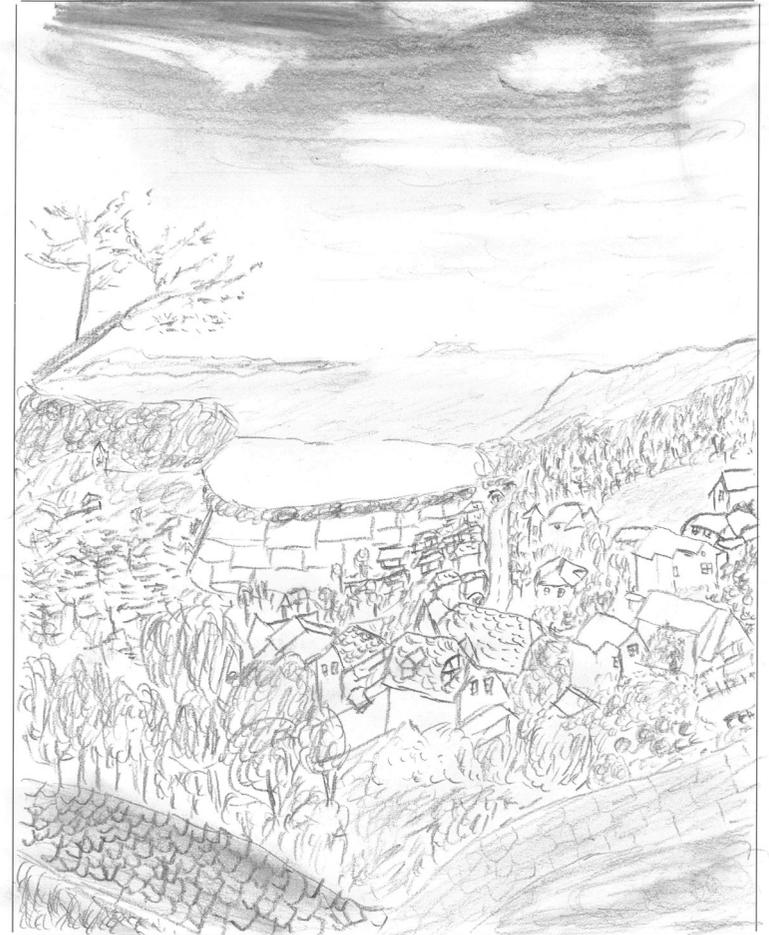
이름: 이 등건

작업명: 회상

작업 노트: 2억 3일 밤해 여행 일지, 보내고 기억해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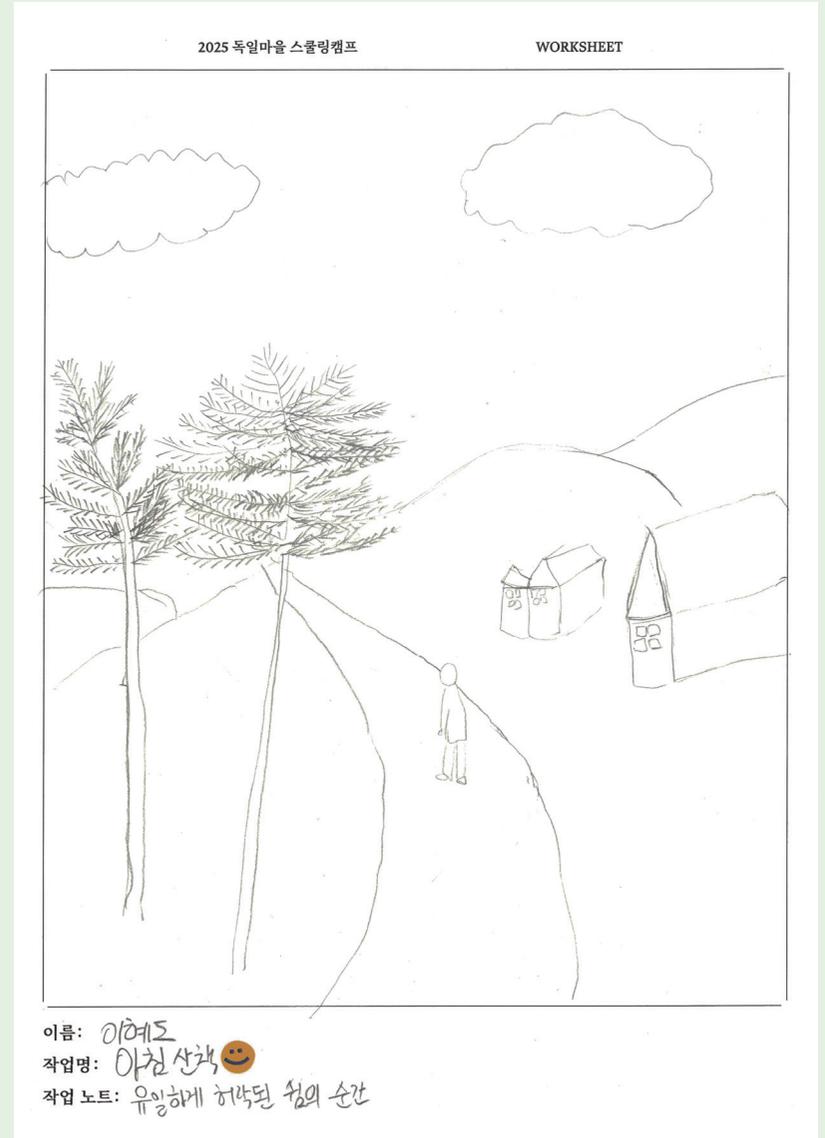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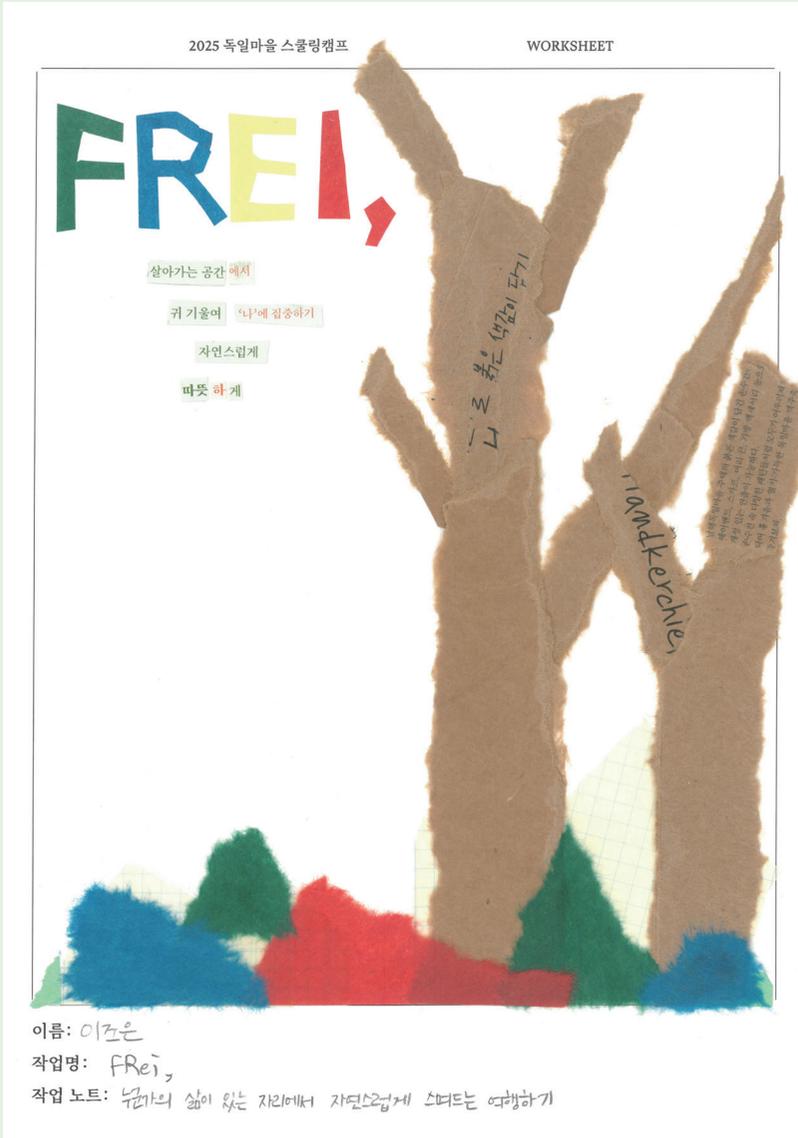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이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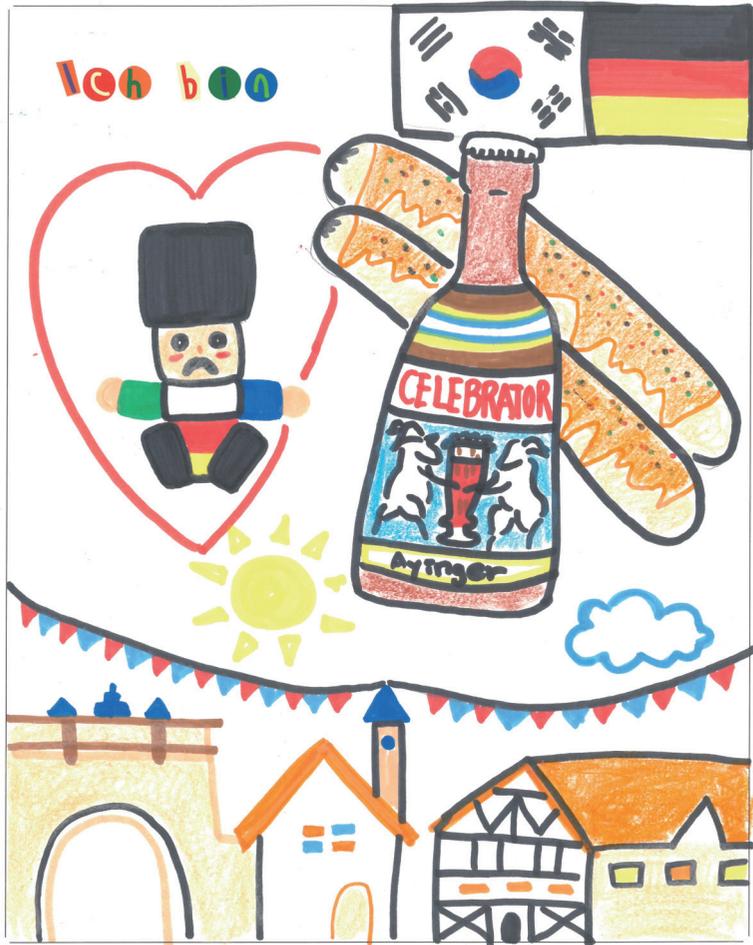
작업명: 바다를 품은 남해독일마을

작업 노트: 독일마을 언덕에서 바다를 향해 내려다 볼 전망입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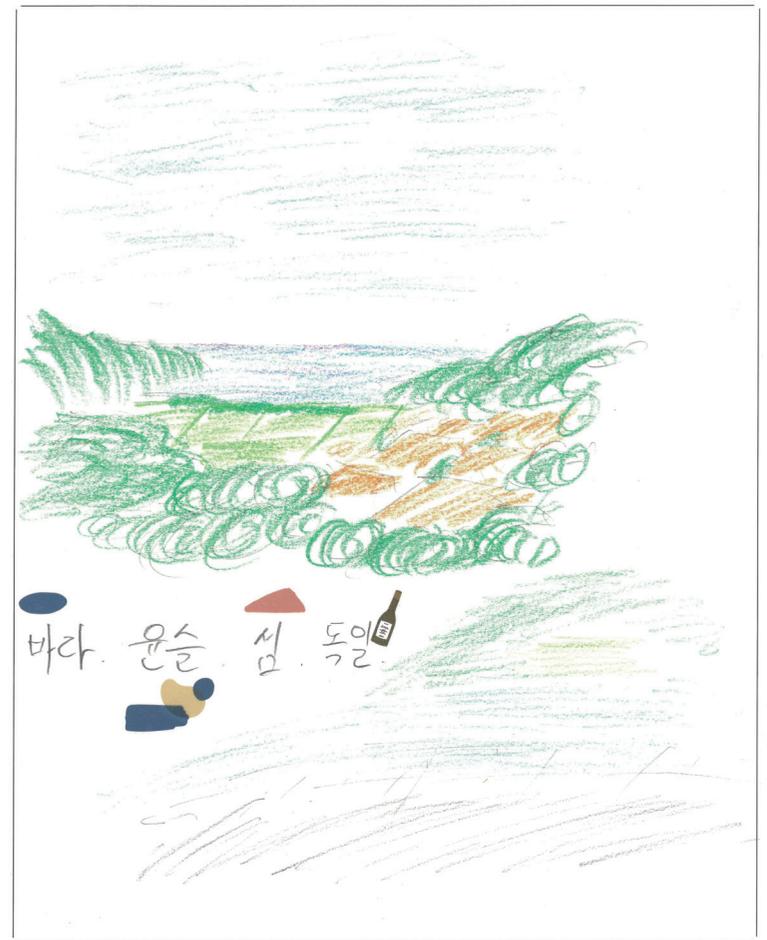
이름: 장혜진

작업명: 독일마을 놀러오세요 ♡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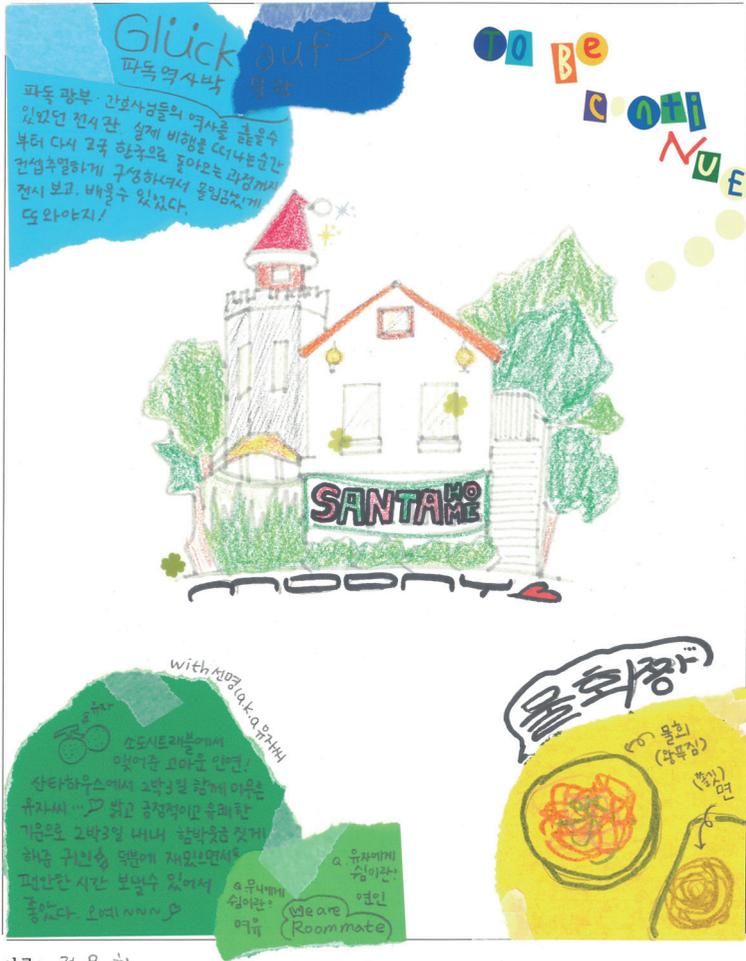
이름: 김민호

작업명: 기억 기록

작업 노트: 시원한 대체온 빛은 남해바다 등경.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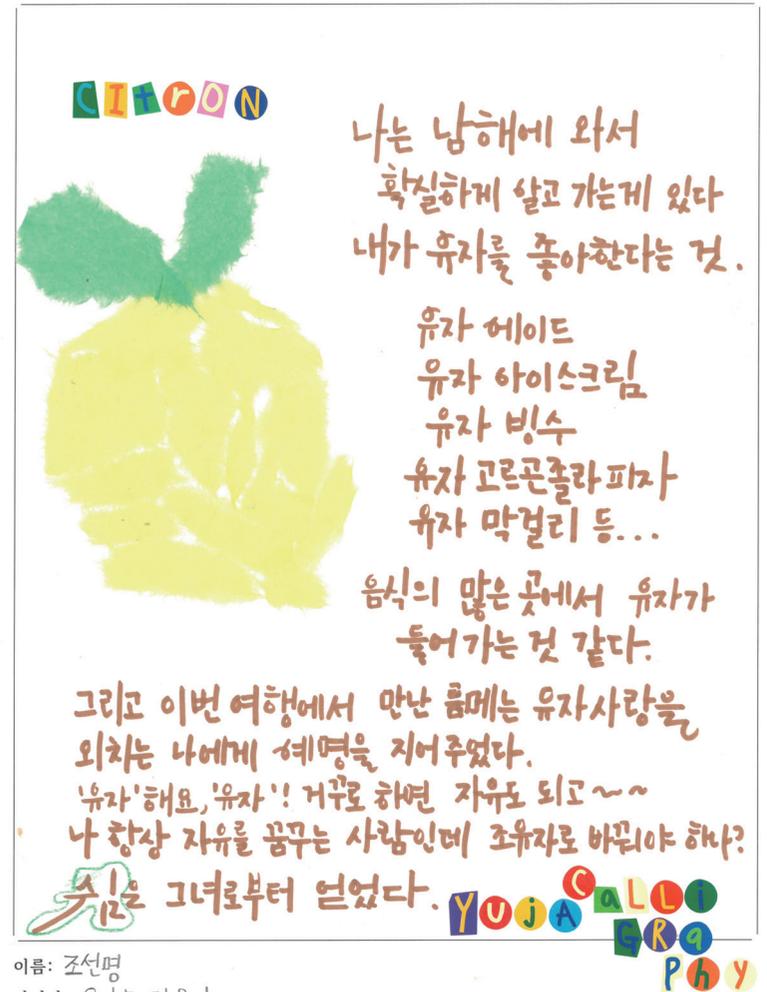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정 문 희
작업명: 남해의 일일들, zip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이름: 조선명
작업명: 유자는 자유다
작업 노트: 조식 후 대라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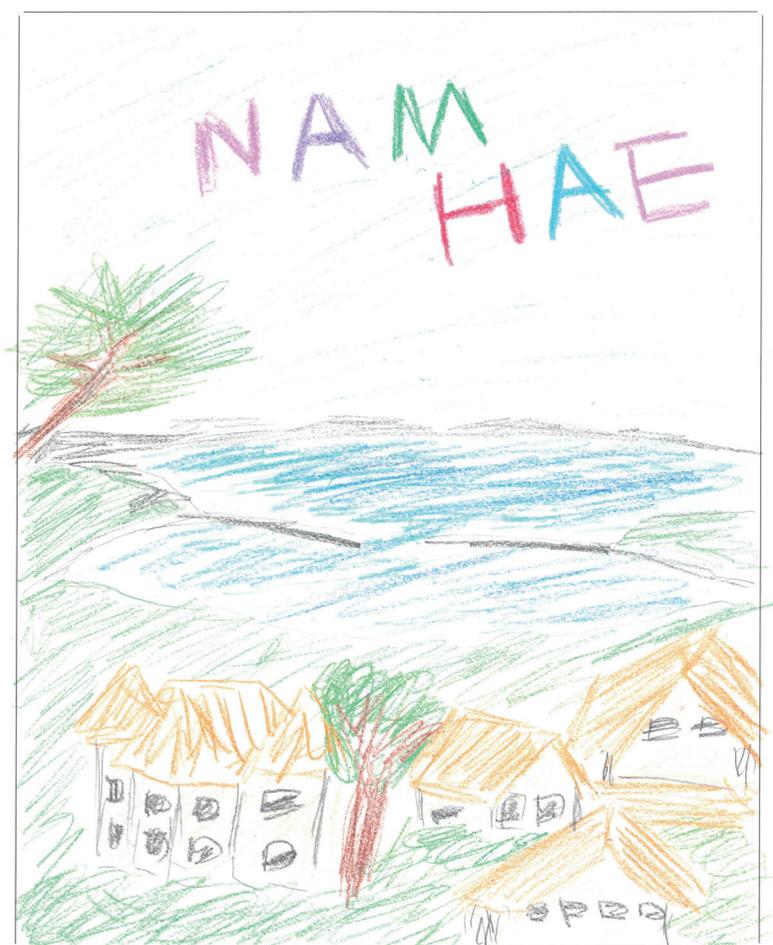
이름: 최승우

작업명: Glückliche Erinnerung

작업 노트: 행복하고 즐거운 한겨울 기억.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최승원

작업명: 남해

작업 노트: 동원 마을에서 된 남해의 정공경을 스케치.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홍수연

작업명: SHYM의색

작업 노트: 남해 독일마을에서 보았던 씬의 색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계획대로 흘러가는 여행은 없다.

생각대로 살아지는 삶은 없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통에
일상을 잡고 남해를 향하는 가방을 싸고,
어느순간 노드의 바람결이 감기는 눈...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통에
가슴이 철렁, 다급한 발걸음을 옮기고,
분개를 감은 채 멧찍게 웃는 여자에게 보내는 햇웃음...

독일마을의 아침 바람에 내가 사랑하는 가을을 느낀다,
가족사건속 아이들의 얼굴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느낀다.

계획대로 흘러가는 여행은 없다.

생각대로 살아지는 삶은 없다.

이름: 강 정현

작업명: 여행 같은 삶

작업 노트: 100% 계획된 여행은 힘들게 만나진다. 삶도 그렇다.
30% 여유가 필요하다. 여행에도 비 삶에 여유가 필요하다.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WORKSHEET

삼해 바다를 바라보며

바람에도 잔잔한 삼해 바다는
내 마음도 잔잔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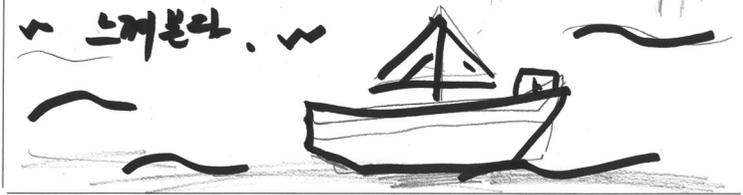
살도 뽀뽀이 포근해지는 듯
사투르지 않아도 되는 오늘

그저 편한대로 마음을 귀로 받는다
나이가 들라는 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더 잔잔해 졌다는 것이다.

삼해 바다를 바라보며

내 인생도 훨씬 젊어진다는 것을 ~

~ 느껴본다. ~



이름: 강재연

작업명: 삼해 바다를 바라보며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김 반 년

제목: 들숨 날숨

설명:

인생은 사노라면
들숨과 날숨이 쉬 없이 교차한다
태어날 때 첫 들숨 쉬고
인생 마지막에 날숨 쉬다

희노애락 함께한 들숨과 날숨
숨 건너며 지내왔던 지난날
Good bye!

함께하는 들숨, 날숨
우리 젊다 아이가

바람결 누리며 멋진 인생이야
Bravo, My Life!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연필 오렌지에 잡아보니.
 이게 뭐라고
 너에게 따듯한발 한 마리
 전하지 못했을까
 이 연필
 너와 같네.
 고맙다.

이름: 김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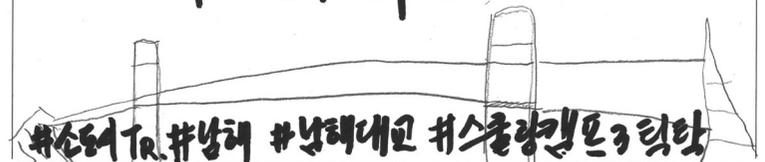
작업명: 시 일기

작업 노트: 고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오래가면 좋겠어요.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내가 해야 할 일
 서라 그러면 보일것이야.
 눈이만 행동하라.
 앓으라 그러면 생각할것이다.
 생각내면 물직이라.
 누우라 그러면 하늘이 보일것이야.
 하늘이 보이면 그다음에
 사무치며 울부짖으라.
 내가 살아있음을.....



#스쿨링 #남해 #남해대교 #스쿨링캠프 #틱탁
 이름: 김응순
 작업명: 내가 해야 할 일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엄마

늦은 나이에든 혼자인 내게
 갔다와라곤 졸음니 한번 가봐라곤 하는건 어때
 마중해주던 엄마
 곁을 허락해주어야 엄마를 그리네마 이치게 됐고

아이들 싫어했던 나
 마중해주나 늦은 나이에 아이들 낳아주세요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됐고

아이들 귀찮아보내주세요
 한번더 엄마를 이해하길 감사하게 됐고

9살때의 지금
 영혼처럼 아껴와 사랑은 변치않고...
 아껴와 엄마만큼 하려면 난 멀었겠지

엄마처럼 살기 어렵다고 말했던 걸요리 못했던 나.

마중해주어 엄마
 감사하네 사랑해주어

이름: 김윤정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제목: 늦은 바람과 김만중의 무장

살해 마늘 가을 스풍
 허약 마늘 쪽이 씬풍처럼 놓여
 섬길의 시간을 천천히
 끊어 읽게 한다.

입구에서 송을 고르며
 나는 마음의 두시락을 펼쳐
 김만중의 무장을
 바닷바람과 마늘향이 싸
 먹는다.

이름: 김준휘
 작업명: 늦은 바람과 김만중의 무장
 작업 노트: 살해바라 가을 스풍과 늦은 김만중 무장한 기행시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제목: 참, 좋다!

몰랐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일줄

몰랐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일줄

내 생활없이

아이들의 영아로, 어니리로, 딸로, 아들로...

점점, 힘에 부쳤다.

언사가 다 귀찮다.

몰랐었다.

혼자 여행을 와보니

내 19년의 결혼 생활과

나만의 육아의 힘듦이 눈부듯 사라진다.

왜 진짜 용기내지 못했을까...

오로지 나 혼자만의 힐링

여행, 친구들.

참, 좋다!

이름: 유 정이

작업명: 참, 좋다!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연장가부터 저간 길은 뒤돌아보는걸
덜 하는걸 같습니다.

아마 개운바저서

생각하는것도 귀찮아진거 같습니다.

50에 들어서면 내어놓는 연습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깍 온채 꼭 휴어야 할

새로운 큰 꿈이 생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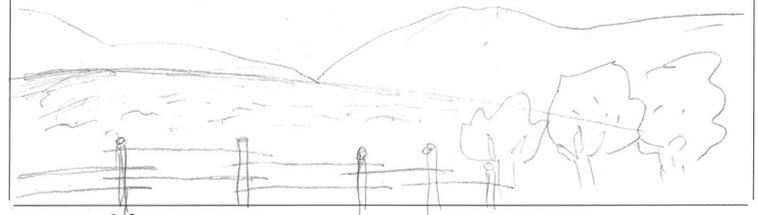
달려가기 마뽀것 같습니다

내어놓고 뒤돌아보는걸

이름 아귀고 난뒤 한바고 합니다.

용기 없지 않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름: 박 정선

작업명: 아귀고...~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나에게 주는 말

따뜻한 커리가 생각나는
11월 오후.

서포 김만중 선생님과
유배길을 함께 하며
나의 삶을 회고해본다.

참 수고 많았다
열심히 했다.

이젠 좀 쉬어도 되
도록 노력

자꾸만 될하려고도
하지마

그냥 그냥 살면 돼
이젠 맘가는 대로
살아봐

이름: 박진화

작업명: 나에게 주는 말

작업 노트: 자선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쓰는 말.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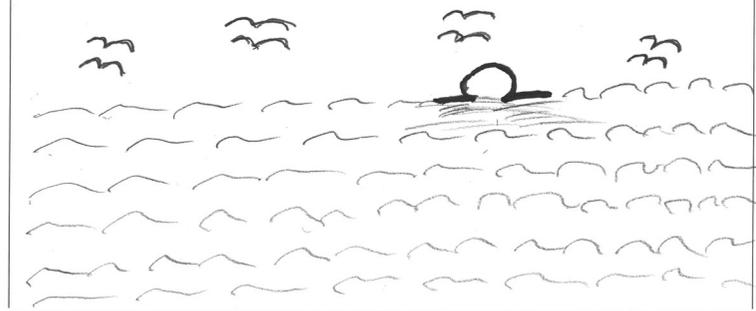
더오르네 북은케를 바라보니
마음이 새롭네
저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왔을까

매일 떠오르는 해지만
독일 마을에서 본 그 일들은
나에게 속삭이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지만
절로 아름답게 살라고

틱탁 젊다 아이가

그래야 잘살았다고 말할수 있다고



이름: 서정민

작업명: 틱탁 젊다 아이가!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나에게 전하는 말
 찬 바람에 시리던 날들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네.
 파아란 하늘에 내 마음
 등실 등실 날아오르네.
 무글 무글 구름은 내 마음을
 포근히 감싸며 조용히 되어오르네.
 다가오는 날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오늘이 되기를
 소중한 시간이 축복이었네.

스쿨링 캠프
 아지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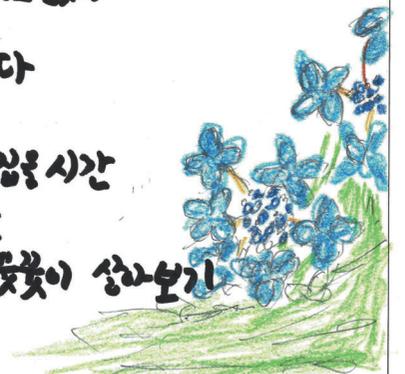
이름: 송강희
 작업명: 나에게 전하는 말
 작업 노트: 살아있는 시간을 나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햇빛이 몸을 뒤집었다
 꽃이 작은 산수유는 버리를 쓴다
 꽃보다 먼저,
 더 크게 예쁘게 피어난 햇빛이
 부지런히 벌을 부른다
 태양벌을 경리며 불러내느라
 새 색 다 잃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다 꽃이 시앗을 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을 뒤집는다
 더 이상 살 보일 필요 없다
 얼룩진 모습으로
 하늘 아래 덩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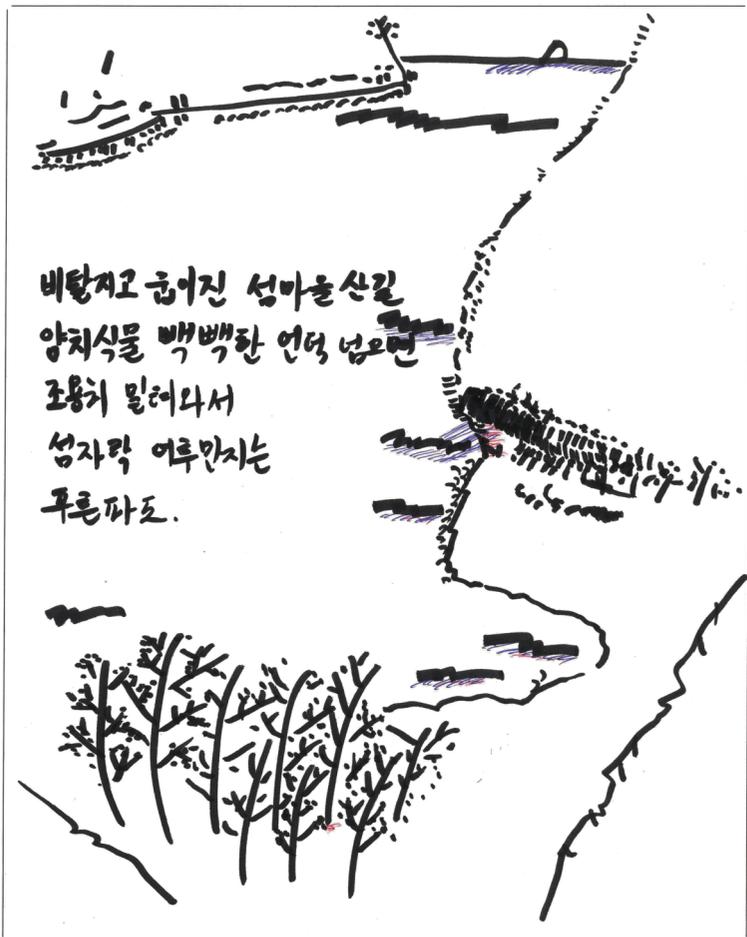
이제 나도 꽃잎 뒤집을 시간
 힘이 좀 빠져도
 얼마 안 남 '나'로 꽃잎이 살아보지



이름: 심명옥
 작업명: 꽃잎 뒤집을 시간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톨링캠프

WORKSHEET



비탈지고 굽어진 성마를 산길
양치식을 뽀뽀한 언덕 넘어면
조용히 밀려나서
성자막 여루만지는
푸른파도.

이름: 안 병희

작업명: 노도에서...

작업 노트: 인생이란 저음은 숲속길을 걷듯 힘들지만, 그 끝에는 수를 위로하는 파도가 있겠네...

2025 독일마을 스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안종일

제목: 들꽃의 고백

설명: 한 인간의 삶을 사계절을 나누어, 회고에 각 의미로운 경이로 다시 피어나는 꽃의 고백을 담았다. 들꽃은 이종에서 피어나는 평범한 삶의 존엄을 상징하며, 끝내 나뭇길, 이종에서 살아갔다. 다짐은 맺는다. 그러나 비움과 더불어 다시 피어나는 인간의 생애가 꽃의 고백을 통해 새겨진다. 신혼이다.

I. 봄 - 회(悔)

새벽 바람이 내 이름의 가락을 맞춰주었다.
얇이 등을 얹자, 같이 먼저 열렸다.
가난은 그곳을 비우는 법을 가르쳤고,
뒤늦게 돌아와 들꽃 한 송이가 나를 일으켰다.

II. 여름 - 회(怒)

땅으로 말하니 많이 무거워졌다.
가뭄 찬 분노는 잔치감 넘쳐 제를 불렀다.
나는 뇌관을 들고, 권위의 약자를 공격했다.
경멸은 그곳에서 복을 오래 풍요라는 걸 배웠다.

III. 가을 - 애(哀)

낙엽은 한 조각씩 나를 비워 줬다.
회색의 기억은, 노후의 영혼은
재우면 각처로, 떨어진 뉘엿겨웠다.
비움의 여백에서 들꽃 향기가 멀리 번졌다.

IV. 겨울 - 각(樂)

눈이 소리를 달자, 몸집이 노래가 되었다.
소리가 지나지면 귀가 닫히고,
조용한 흐름엔 마음이 열린다.
경멸한 그릇 - 작지만 오래, 따뜻하지만 조용히.

V. 다시 봄 - 생(生)

새벽빛이 이슬을, 내 안을 깨운다.
눈물 머문 자리마다 들꽃이 다시 일어선다.
너에게 살아라, 이종에게 살아라.
눈물이 없는 눈동자에 무지개는 피어오르지 않을지니.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8월의 뜨거운 에너지와 영정을
품고 생명은 시작되었다.

사랑이, 꿈이, 희망이, 즐거움이
그날이, 하루이, 일주일, 불야성이
서서때때로 나를 찾아왔다

품고, 삼키고, 만나고, 이겨내며
그 시간들을 전했고 이겨냈다.

아이에서, 여민으로, 아내로, 엄마로
나는 단단해졌다

나는 여전히 뜨겁고 영정 속으로
항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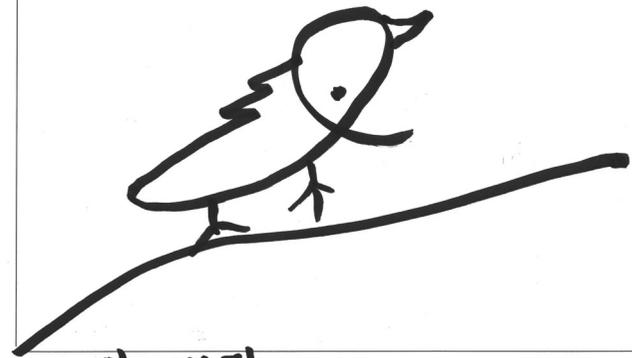
이름: 안진희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2025. 11. 2

친구에게 이끄는 ~~감각~~ 감각이 ~~아~~ 찾아온
남해가은 독보야은.
평범한 것 같은 ~~모든~~ 다양한 일상 3인이
내게 ~~평~~ 평온을 안겨다
아 편안하다
늑대는 것이 이렇게 편안히 죽으려고구나.
반 다시 젊어지려 싶지 않아.



이름: 양어진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11. 2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파릇 파릇한 꽃처럼 꿈꾸는 소녀가
 이제야 알겠다.
 봄만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꽃보다 잎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햇살 아래 반짝이던 날도 있었고,
 비에 젖어 고개 숙이던 날도 있었다.

절음은 나의 마음이고,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져 간다.

봄에는 작은 마음들 내어 주고,
 여름엔, 1등이 되어 나를 감사 주더니,
 가을이 오자 달콤한 사람으로 익어 가네.

서리가 내려도 괜찮아,
 그대의 마음엔 늘 따듯한 빛이 있으니,

뜻다시 봄이 오는 소리가 나요.
 이제야 진짜 나로
 서 있는 시간임을..

이름: 오진숙

작업명: 파릇 파릇 봄 소녀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육십 후반에 들어서야
 노도를 알았네
 김만중 선생님을
 만났네

노도에서 시를 배웠네
 노도의 사소리 바람소리 구름 환글
 이 평온함 속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네

나 지금 노도에 앉아
 눈을 감고 시 감상에
 젖어 보네
 내가 노도의 시인이 되었네

나 시인이 되었다!

이름: 윤영려

작업명: 나 이제야 노도를 알았네

작업 노트: 노도에서 시인을 만나고 자연과 화가 되어본 마음 표현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생의 인연으로
이번생 부모 자식간의 만남으로

가뭇한 부모로 받은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이세상에 세운것처럼

가뭇한 내 하나의 물과
내하나의 마음과
내하나의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려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와 맞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 다워 지길 바라며

수평선 지위로 떠오르는
저 작성하는 태양이 붉은 열원과 에너지로

가장 나아갈수 있도록
가장 내가 아름다울수 있도록
힘주고 또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딘다.



이름: 이경아

작업명: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 난해 오길 찾았다 -

오길 찾았다. 독일 마을에 ~

오길 찾았다. 노도선에 ~

오길 찾았다. 소도시 프레부른 ~

오길 찾았다. 난해 여행을 ~

오길 찾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 한 찾았다.

이름: 이 미경

작업명:

작업 노트: 난해 오길 찾았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이상운**

제목:

설명: **어쩔든**

- 살아보니 모든것이 살아가는 것임을

**어쩔든
괜찮다**

어리석은 결정은 라인 손 웃음을 짓는
숙제를 미루고 핑계거리음 고민하는
늦은밤 또 한잔의 유혹에 빠지는
술에 젖은 욕망에 향리가 살아만 가는
뭐야 그렇게 부족함지 더 번갯파고 애쓰는
우리 자식은 산뜻보다는 ... 라는 것에 간절함이는
해내지 못한것 같은 두려움에 짐만하는

**어쩔든
괜찮다**

**두려움도
가벼운 거짓말도
없는 유혹도**

살아보니

**괜찮아
어쩔든**



2025년 11월 1일
노도애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내 나이 이드서 이드신 (고통카스 밧경)
그동안 자여은 너무 좋아하
맛기 살노테르 기노 보감은 바진 풍함은 밧생아
사랑은 가르며 파섯을 밧트 차머기 여함은
아름다운 풍함과 앗얗한 마음은 신에게 한다.
살아다 보며 바진 카피가 꼬이며
어떤 카피잔어 크락보르 피어나는 카피양이 꼬를을 자국한다.
아름다운 카피 한보음이 비움까지 아뜻해진다.
행복은 밧음이 지노게 아니다.
스프의 크피와 제형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는데 가족의 배려와 응원이 있어 린두었다.

이름: 이 선자

작업명: 주유 (세미미어 린타서)

작업 노트: 밧스 생함은 좋아하노 마켓리드프가 이저저 가크미라며 ...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날씨도 좋고
 남해 독일마을 스쿨링 캠프에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사랑 받은 가족을 생각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좋은 곳
 안내 해주시고 애써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름: 이순희
 작업명: 여행
 작업 노트: 소중한 시간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편백 나무
 숲길엔 이야기가 있다.
 코끝으로 풍겨 향기는
 어서 오래 반겨줄
 나무 나무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가 있고
 용기를 만들어
 새로운 길 개척하고
 나무 ^{결혼}결혼
^{자식을}자식을 만들어 ^{사랑}사랑 퍼뜨리는
^{나를}나를 여는 ^{이야기}이야기
 나무 ^{엄마}엄마들의 이야기

이름: 이순희
 작업명: 편백 나무
 작업 노트: 편백 나무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이 연숙
 제목: 나의 인생
 설명: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
 내 인생도
 한 잎 한 잎 떨어진다
 이제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난 모르지만
 그 잎을 부여잡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나의 인생아
 고맙고 사랑한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임정희
 제목: 노도
 설명:

누가 있어
 저 작은 섬
 노도에 발길을 멈추게 하네
 입안에 가득한
 밝아 웃기 처럼
 시어가 있어
 푸른 바닷출렁이
 새들의 노래
 청명한 하늘 빛
 아 - !
 아름다운 자연
 너를 즐기면
 내 가슴이
 너무 작구나

2025 독일마을 스톨링캠프

WORKSHEET

아름다운
독일마을 남해.
시인의 소리가 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들려오는 파도소리 새소리
여민의 가냘픈 노래라
타막기의 선율이
파도라 함께
흐르고 흘러가듯
나는 너와 사이 구름 되어
두둥실 떠가네
푸른 하늘과 동무되어
노도섬 한쪽의
그림이어라.

이름:

작업명:

작업 노트:

임창희
남해 노도섬

2025 독일마을 스톨링캠프

한 편의 시 쓰기

이름: **전승준**

제목: 가르치던 손으로, 이제는 권고 2리터 배우는 중.

설명: 교실에서 오랜 긴시간이 제 인생의 향기였다면, 지금은 그 위에 새색을 더했다고 생각하며 자연에 나를 맡긴채 권고 2리터 다시 사는 중입니다.

분필가루와 송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
내 청춘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말보다 눈빛으로, 지식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가르친 39년.
이제는 가르침의 자리에서 내려와
철판 대신 하늘을 바라보고
시간표 대신 계절을 따라 권고 2리터
자연에게 배우기 시작한다.

바람이 불면 땀을, 햇이 필때면 기다림을,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

지나온 나에게 속삭인다.
"2동안 잘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 전전히 걸어가도 괜찮아."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오전숙님, 감사합니다.
 스무서살에 서점와서 어십클번 동안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딸, 정혜수, 예쁘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 합니다.
 사위, 이치경, 비 딸의 남편이
 되어 줘서 감사 합니다.
 아들, 정호준, 멋지고 착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 합니다.
 오진숙님, 그대가 있어
 행복 했습니다.
 왕공주님, 그대와 함께 라이
 행복 합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바로 당신 입니다.

이름: 정정민
 작업명: 가장 큰 선물
 작업 노트: 진심 가득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가운 속속 오솔길을 거닐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보면 내가 살아
 꿈꾸어 왔던 바람이 마른
 낙엽이 되어 쓸쓸히 바람에
 흩날려 다닌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가 자라는
 봄이 되면 나무에 개수가 돋아나고
 푸른 잎이 자라듯이 앞으로 남은
 인생 개로운 꿈과 바람이
 지기나쁜 것은 소중히
 지켜야겠다.

이름: 정영봉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강해 바다에 갇혀
 버렸던 강 빛깔을 세월이 갇는다.
 바람이 바뀌어
 밀물이 다가와 나에게 후삭인다.
 '너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니?'
 머뭇거리는 나에게
 찬지러운 원숭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준다.
 . . .
 다시 나를 외쳐보기도 용기를 내 본다.
 노도에 남겨둔 새소리에 힘을 얻어...

2025년 11월 1일

이름: 정 영우

작업명:

작업 노트: 강해에서 '나 사용'을 배우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은진란 나

이동지점 반짝이던 내 침묵의 낮음
 아침햇살에 사라졌으나 그 흔적만은 남아있네

눈을 뒤돌아보니 공허함은 뒤로 한데
 은진란 나로 서있네

이제는 힘겨운 짐들은 내려놓고
 없대길 없이 나만의 속도로
 하얗은 잔빛을 내딛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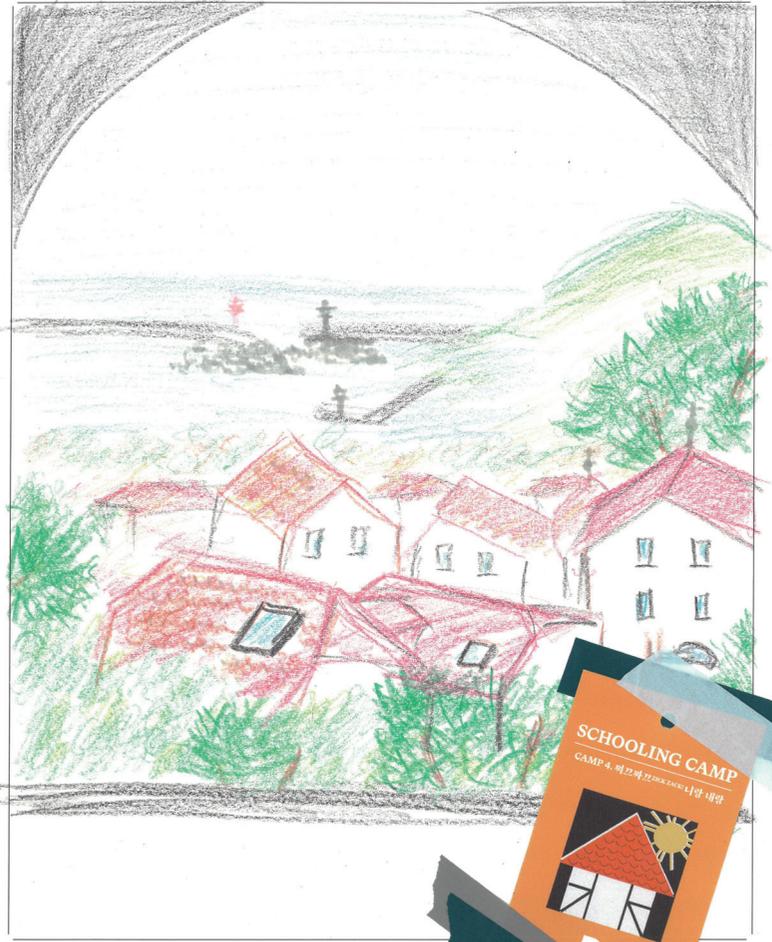
이름: 조 용우

작업명: 은진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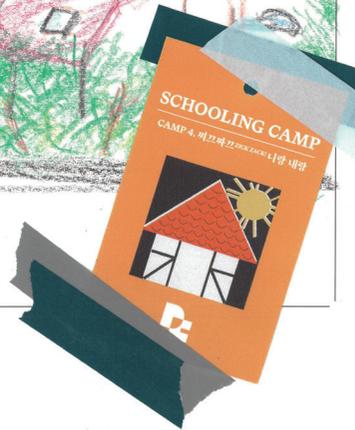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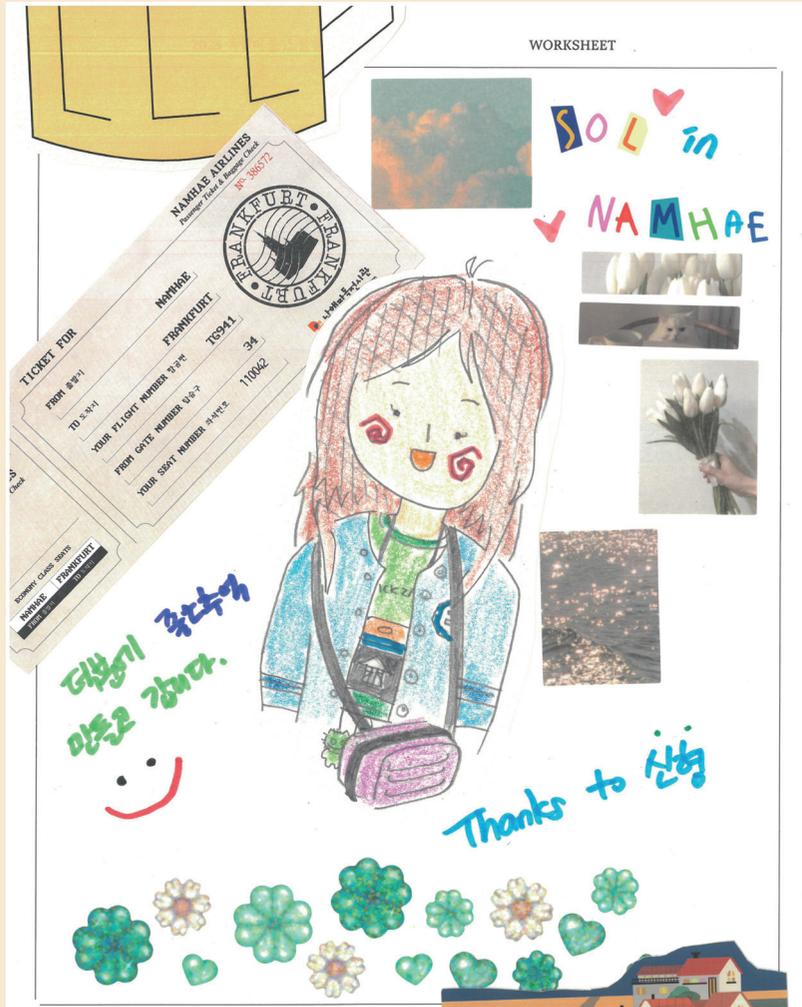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강혜진
 작업명: 액자
 작업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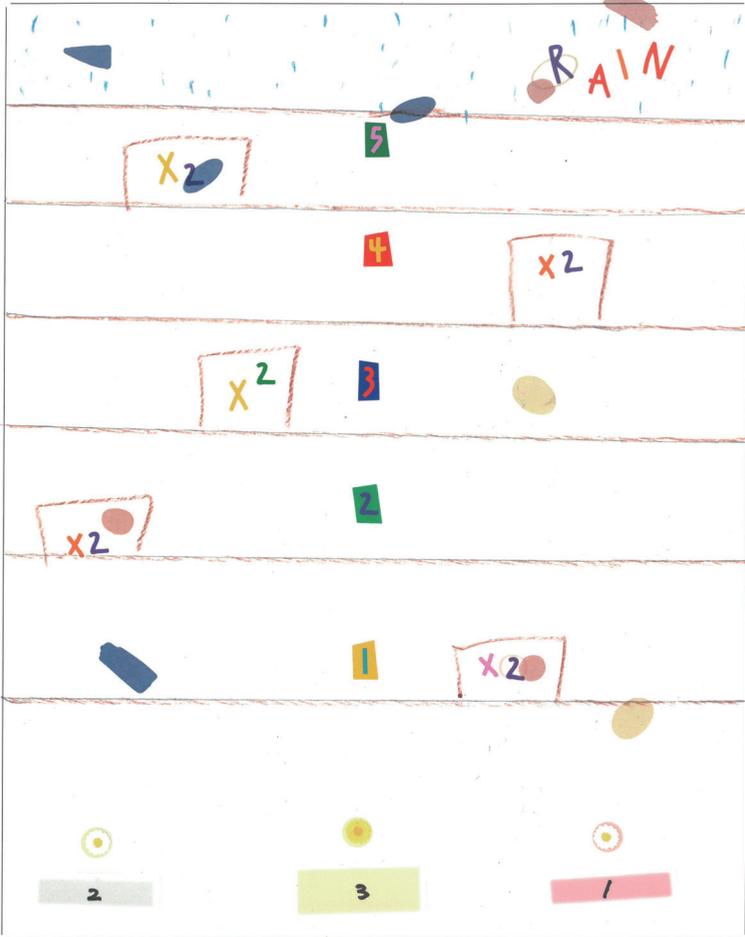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김소솔 Sol
 작업명: Happy Time in Namhae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기 지 노
 작업명: 비오는날 풍등화
 작업 노트: 재밌어서 또 한개요

N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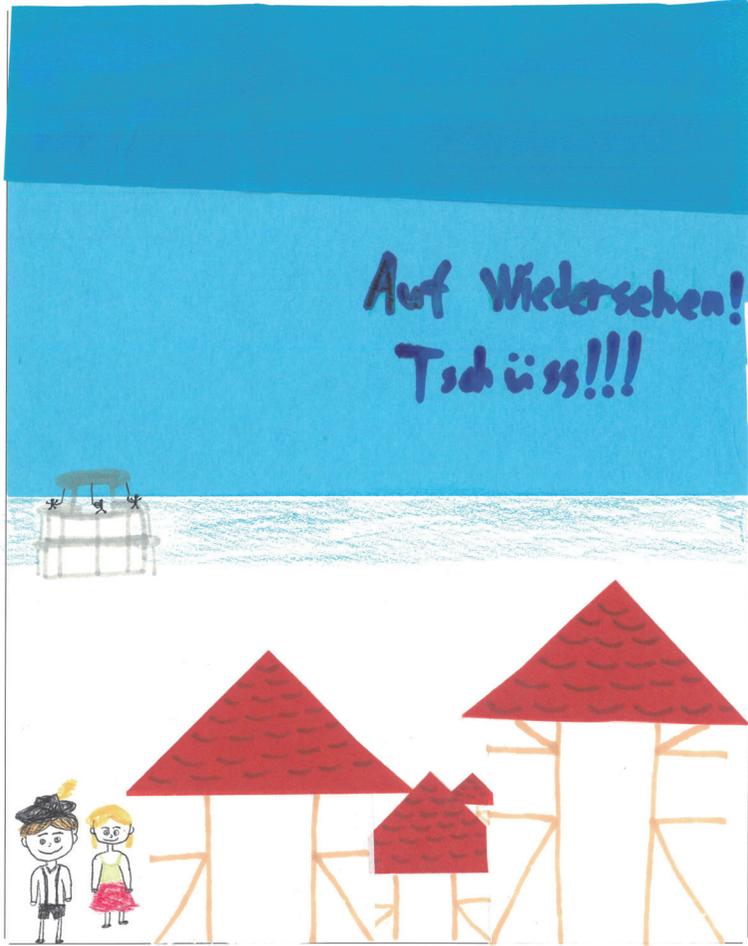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김한철
 작업명: 독일마을 미나(미트)
 작업 노트: 독일로 미나(미트)가 함께라는 뜻이래 해서, '함께' 하면 #학생들의 추억 담으려다시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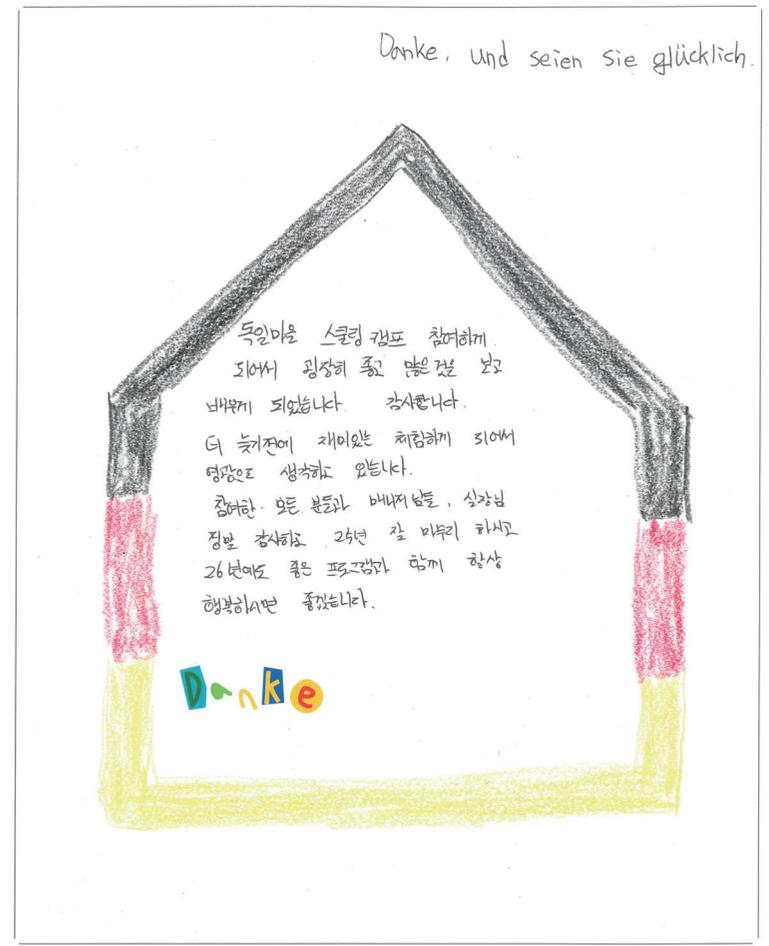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남현우
 작업명: ALLES GUTE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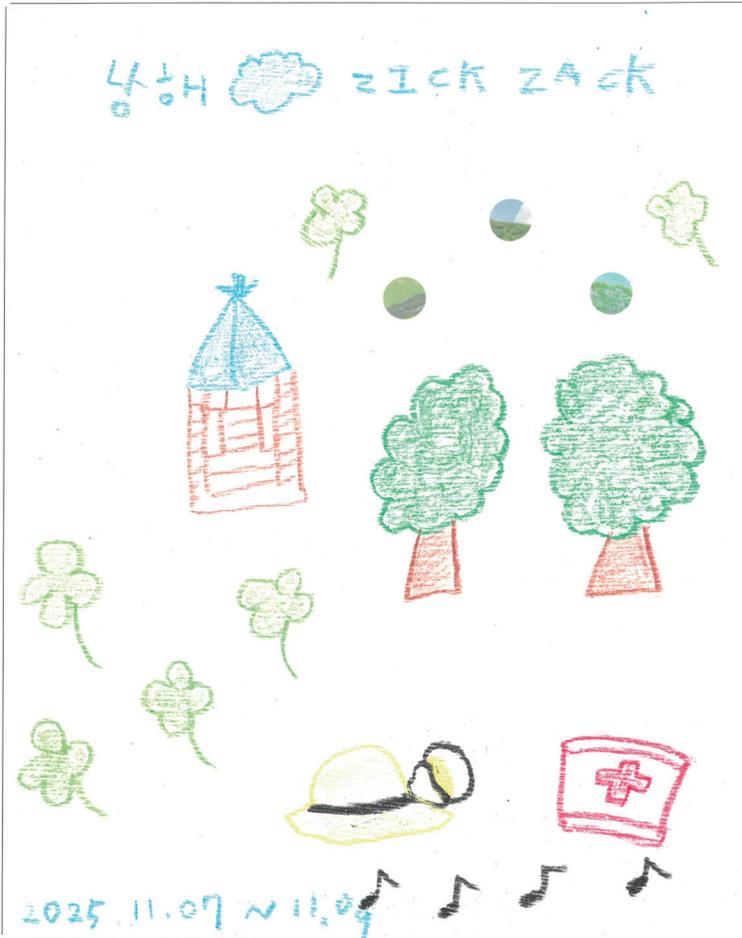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노천일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김승희
 작업명: 11월, 가을의 끝에서
 작업 노트: SODOSI TRAVEL CAMP 4 ♡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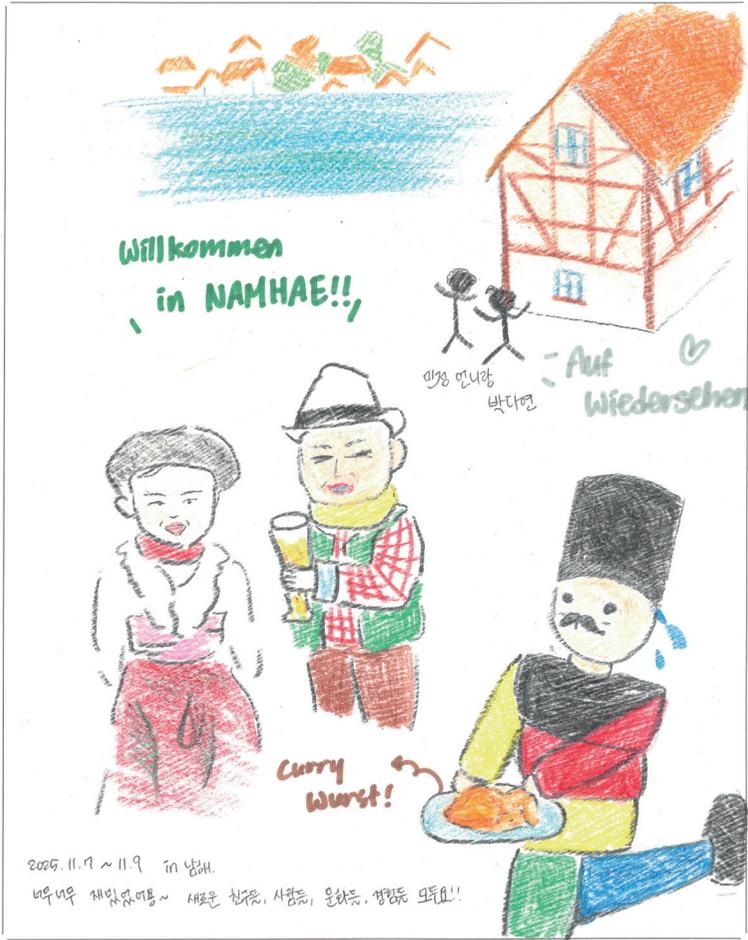


이름: 김다미
 작업명: 독일마을의 추억이 될 거
 작업 노트: 소도시트래블 CAMP 4 ♡ 스쿨링 캠프

2025.11.07
 ~
 2025.11.09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박다연**
 작업명: **남해 독일마을 묘약. zip**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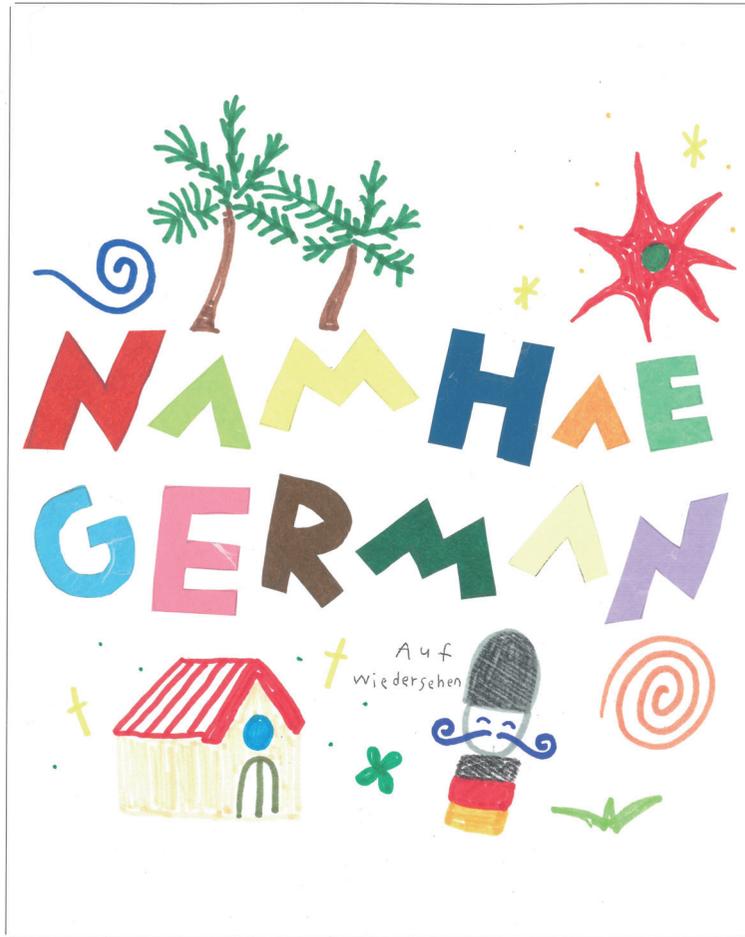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박민석**
 작업명: **그북3일간의 기록**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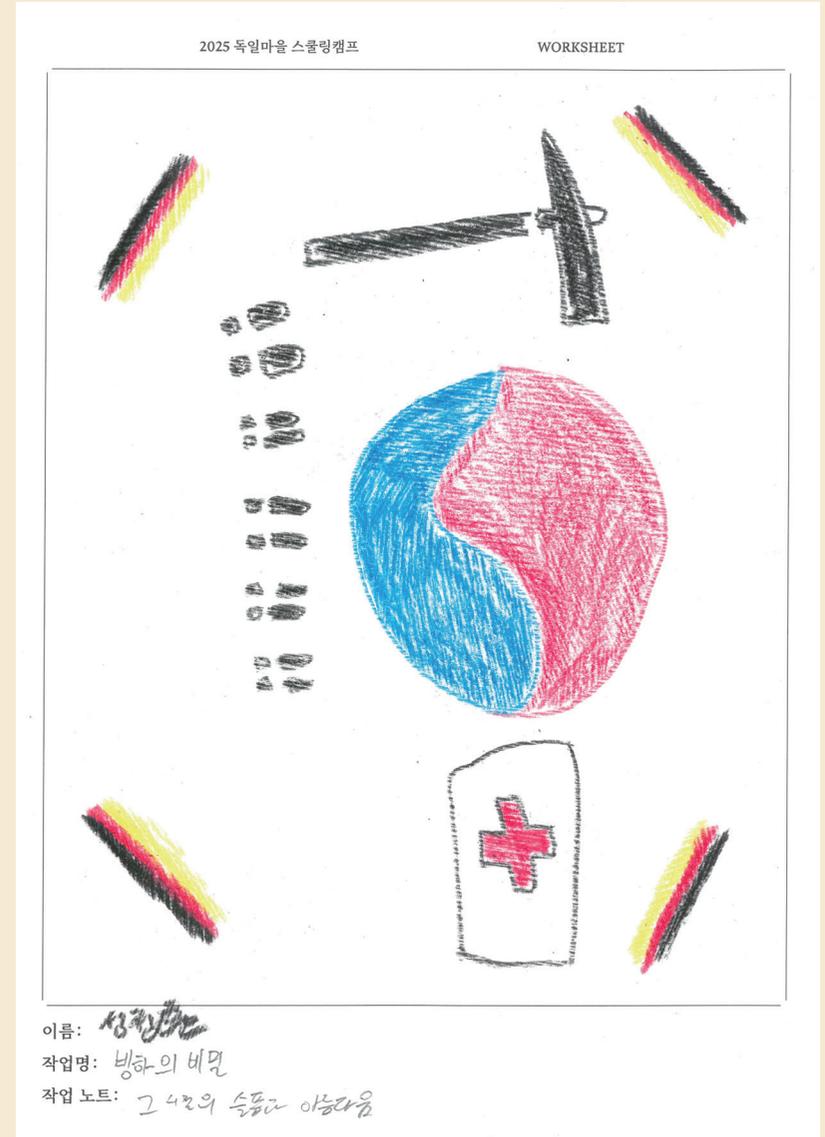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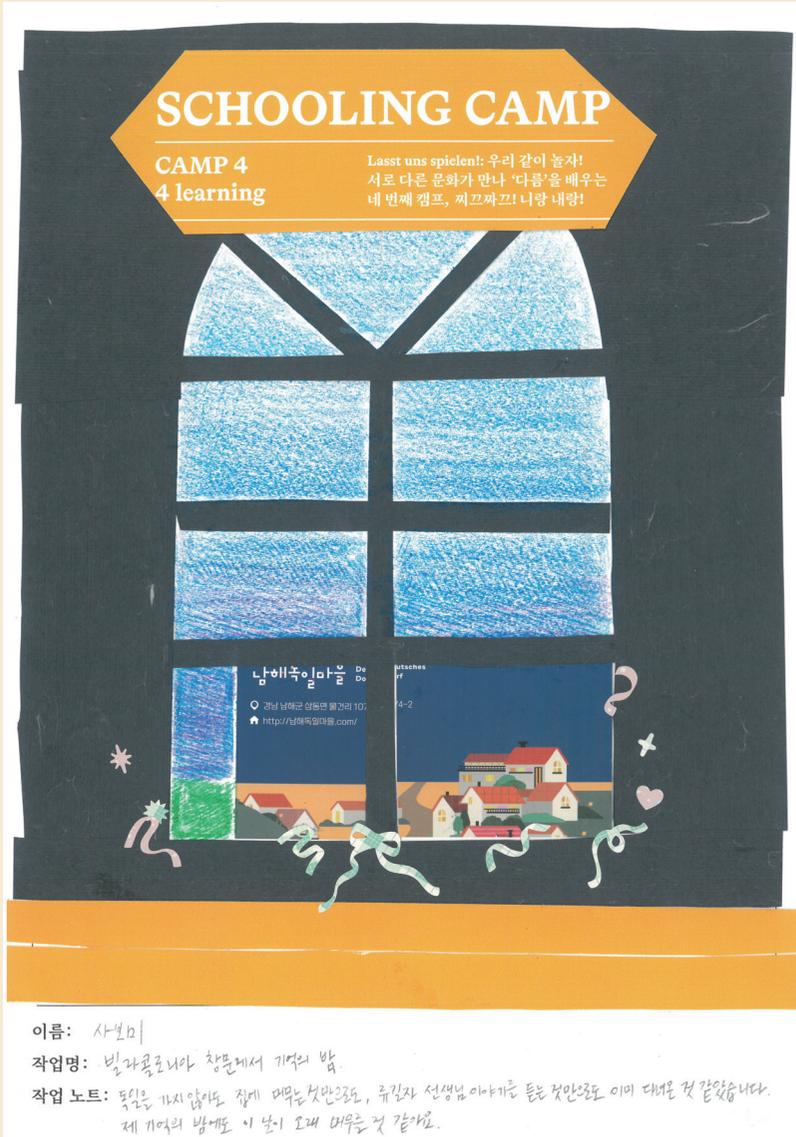
이름: 박민지
 작업명: 남해독일마을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박찬민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킨캠핑

WORKSHEET



이름: **구름리**
 작업명: **스킹이 제일**
 작업 노트: **물이 전망대 클리프 리크 세팅**

2025 독일마을 스킨캠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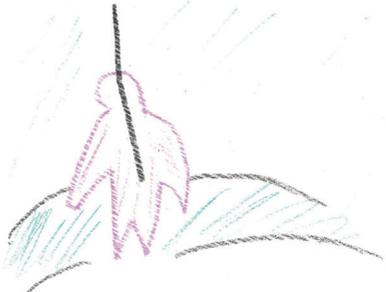
WORKSHEET



여행의 시작
 5:00 AM 기상
 ↓
 10:00 AM 도착
 Début du voyage
 Réveil à 5:00 du matin
 Arrivée à 10:00 du matin



예쁜 관습의 독일마을의 집들
 Maisons stylées



스킨닝 캠프에 다녀가신 도록들 연필 한발하게
 보내 실소
 좋은 기회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소도시트레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오고 싶습니다!

sky walk ?
 이라고 봐주세요
 marche le ciel
 Je te dema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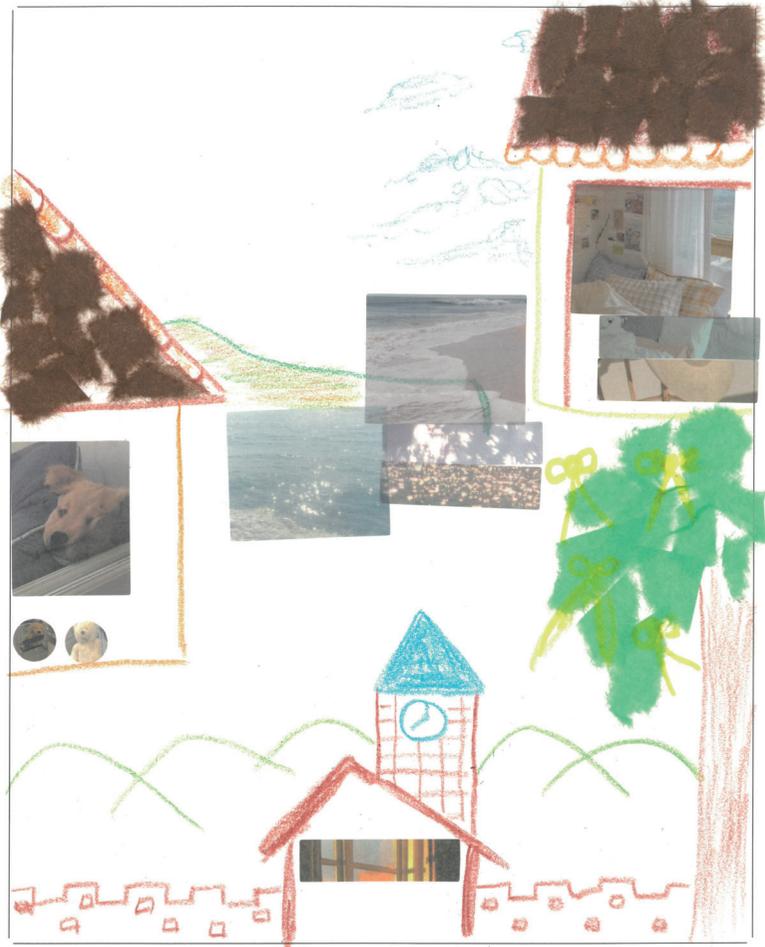


들어보지 못한 파동
 여가자들
 Les histoires méconnues
 de l'immigration
 en Allemagne

이름: **윤상혁**
 작업명: **여행의 기록과 스킨캠핑은 먼지,**
 작업 노트: **내일 내일**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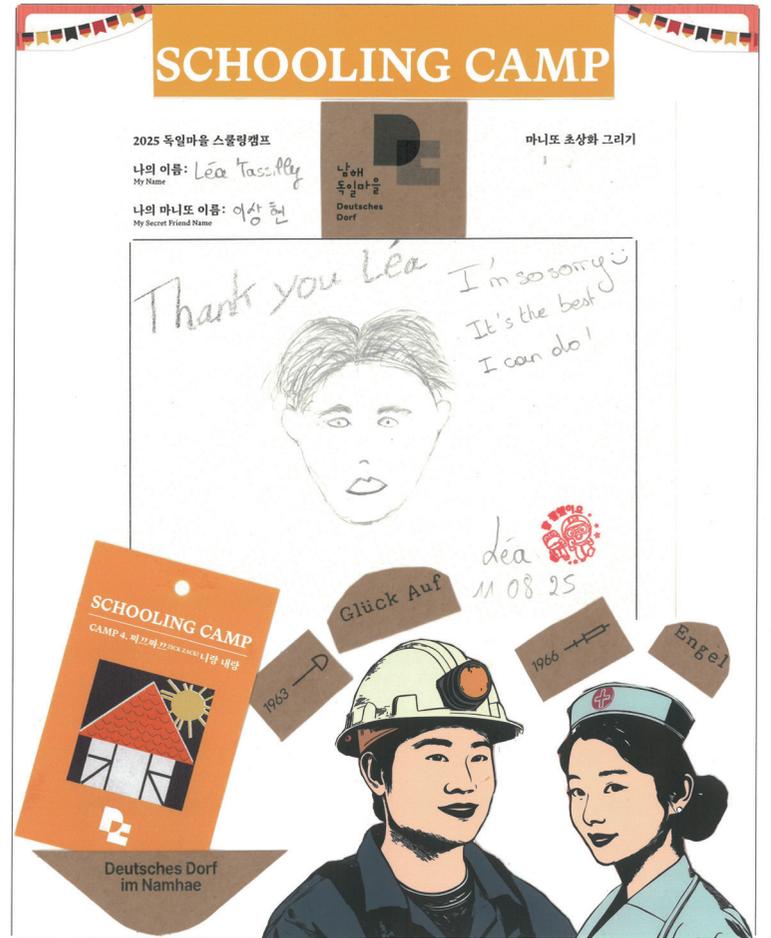
WORKSHEET



이름: 이경진
 작업명: 2박 3일 동안의 의미 있던 공간.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이상현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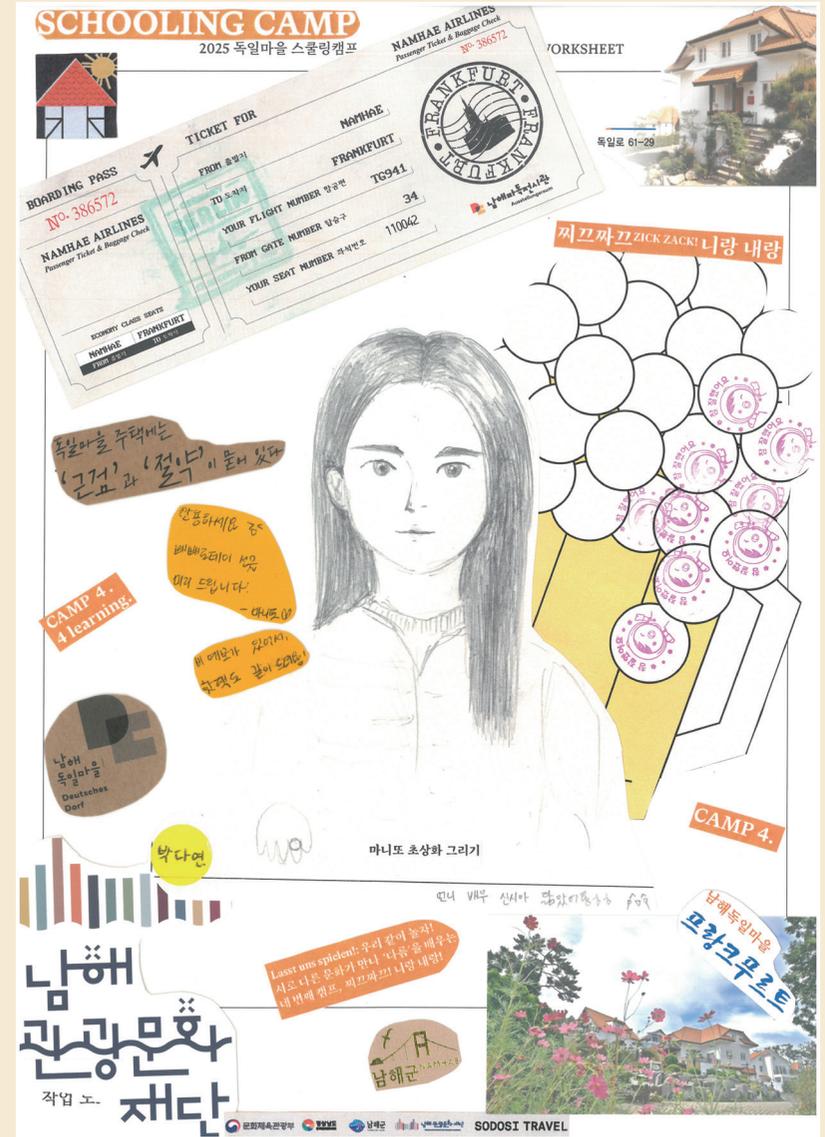
이름: 이영숙
 작업명: LieblingsViertel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이름: 이채희
 작업명: **Kinderplatz Time~**
 작업 노트: **전통춤 Kinderplatz을 배웠다. 1kg은 배민통**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J'ai beaucoup aimé le village allemand de Namhae. C'était calme, lumineux, et différent de tout ce que j'avais vu en Corée jusqu'à présent.

Les maisons colorées et la vue sur la mer donnaient une ambiance joyeuse et reposante.

J'ai eu envie de rester plus longtemps!

Et surtout les gens avec qui j'ai vécu cette aventure sont tous formidables, gentils, drôles et bienveillants.



남해 독일마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함께 이 여행을 한 사람들은 모두 정말 멋졌어요.
다들 친절하고,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 Ainhoa (아이노아)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Pour une 1^{ère} fois à Namhae, c'était mémorable!

J'ai attendu ce week-end avec impatience et maintenant que c'est fini, je suis déjà triste...

J'ai passé de superbes bons moments en compagnie de mes amies françaises, mais je suis très heureuse d'avoir pu rencontrer des Coréens et des Coréennes adorables qui m'ont partagé des histoires sur la Corée et sur leur vie.

J'étais un peu stressée au début car nous étions tous timides mais au fur et à mesure du temps et des activités, nous nous sommes tous libérés et lâchés (surtout lors de la kinderperle), ce qui a cassé les barrières culturelles et de langue.

Je remercie toute l'organisation pour cette expérience incroyable que j'ai vécue, cela restera à jamais dans mon cœur et ma mémoire. Le choix des activités était incroyable, je me suis énormément amusée, j'ai découvert de la nourriture que je n'aurais jamais osé commander et malgré un peu d'appéhension, j'ai super bien mangé (parfois un peu tôt à mon goût haha...).

Je suis heureuse d'avoir accepté de faire partie de ce schooling camp, je repars ce soir à Seoul pleins de souvenirs dans la tête.

Je remercie également le village allemand pour leur accueil (même si je n'ai pas tout compris) et le partage de leurs histoires ♥♥

J'espère pouvoir participer à d'autres voyages comme celui-ci dans le futur pour me rapprocher un peu plus de la culture coréenne.

See ya next time Namhae ♥

너무 감사합니다

2025

* Namhae *

Comme quoi dans la vie, il faut être pour ne pas regretter...
Petite dédicace à Tiger pants! De la part de l'un de ses muses

이름: HORTENSE 오르탕스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텝캠프

WORKSHEET

Wow!!! 

C'est le 1^{er} mot qui me vient quand je pense à ce séjour. Cela fait un mois que je suis arrivée en Corée, cela fait un mois que j'ai commencé ma nouvelle vie. Séoul est une ville incroyable, il y a des choses à découvrir à l'infini!

Margaux nous a proposé un weekend à Namhae, on a dit oui et re-OUI!

Je n'attendais rien de ce weekend et j'en repars avec le cœur plein de joie. J'ai découvert un endroit magnifique 🌊 La mer, les fleurs, les grenouilles, les habitants sont ADORABLES, nous avons découvert le village allemand avec les louveteaux, nous avons partagé les repas 🍷. Tous ensemble, nous avons appris à nous connaître, nous avons beaucoup rigolé (merci Tiger pants).

Nous sommes étrangers, nous ne parlons pas coréen et nous avons été accueillis à bras ouverts par tout le monde. MERCI. THANK YOU. 감사합니다

Ce weekend était INCROYABLE, cela restera à jamais dans mes souvenirs. Mon année de PVT sera unique et pleine de souvenirs grâce à vous tous.



이름: 레아 Léa Tasilly 

작업명:

작업 노트:

2025 독일마을 스텝캠프

WORKSHEET

A TRIP TO NAMHAE...

독일 마을 엄청 좋았어요!
음식 맛있고 바다 뷰가
진짜 아름다웠어요!
기회 있으면 다시도 싶어요~



HOT-DOG~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행복했어요! ♡
WU MERCI BEAUCOUP!!!

이름: Margaux (마고)

작업명:

작업 노트:

스쿨링캠프 이야기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WORKSHEET

A week-end at GERMAN VILLAGE

I arrived one month ago in Korea and I'm really glad to be able to travel to south.

I loved the german village and the people we met.

The meals were so good and I'm grateful since I could eat vegetarian food ♡

I learned about Koreans natives that came to Germany to work as nurses and mimotes. This was truly emotional and interesting. We shared some muffins at their home and talked in a mix of Korean, German, English and French.

I met so many amazing people here ♡

I decided to push my limits and do the Skylark activity. We flew above the sea! So cool!

We couldn't walk on the beach, it was rain.

THANK YOU EVERYONE Merci beaucoup!

이름: SALOMÉ 사로메 VASSE 🇫🇷

작업명: *The beauty of Namhae*

작업 노트: * * *

← A key to happiness *

4

INTERVIEW & REVIEW

하우스투어

Q1. 약 40명의 캠프 참가자와의 만남,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류길자

손님들이 모두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결혼식 사진과 약혼 사진도 보여주고, 이 집 (빌라 콜로니아)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보여줬어요. 손님들은 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독일에 가게 되었는지, 간호사 생활은 어땠는지, 독일인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신기해하는 손님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아요.

서부임 & 울머 부부

서부임

2회차 캠프(숨숨, 씬) 손님들은 독일인들이 어떻게 쉬는지 묻더라고요. 독일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회사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 취미활동을 하죠. 주말에는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맥주를 마시러 나가기도 해요.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에 살기 때문에 쉬는 날엔 정원도 가꾸죠. 그런데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정시 퇴근이나 휴가 내는 것마저 눈치 본다고요. 독일인들은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쉬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게 안타까웠죠.

울머

4회차 캠프(찌끄짜끄, 니랑내랑) 손님 중에서는 프랑스인 손님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궁금했죠. 독일어를 전공한 학생이 있어 독일어로 독일의 문

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저를 따라 독일, 페루, 포르투갈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온 아내를 위해 남해 독일마을에 집을 지었는데, 벌써 이곳에 온 지 20년이 넘었네요. 가을이 되면 독일은 하늘이 흐린데,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좋아요. 낮이면 따스한 별이 드니까요.

Q2. 참여한 소감

류길자

너무 재밌었어요. 펜션 손님 중에서도 파독 간호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은 있었지만,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하우스투어 요청을 받고는,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싶었죠. 독일마을에 대한 선전도 되고요. 마침 독일에서 남편과 딸이 한국으로 들어온 터라, 손님들과 인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도 재밌었는지,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묻더라고요.

서부임 & 울머 부부

처음 보는 손님들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들이라면 언제나 환영이죠. 하우스투어 손님들뿐만 아니라 펜션에 묵는 손님들도 대부분 독일에 여행을 다녀왔거나, 파독 간호사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요. 가끔은 독일마을이 파독 근로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온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면 눈이 커지죠.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 놓은 마을이라도 우리처럼 실제 독일인이나 파독 근로자가 사는 곳은 드무니까요.

독일마을 마을해설사

Q1. 참여한 소감

김향숙 해설이 끝나고 손님에게 칭찬받았어요. 그분은 전에도 독일마을을 여러 번 와봤던 분이셨는데, 해설 없이 구경만 할 때는 몰랐던 이야기와 사실들을 알게 되니 같은 여행지라도 또 다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참 보람되고 기뻛죠. 새로운 취미 활동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손혜련 참가자분들 중에 남해와 가까운 지역에 사시거나, 남해 여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던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3회차 캠프에 오신 분들은 자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제 사투리도 잘 알아듣고 반응해 주셔서 즐겁게 해설했던 것 같아요.

**이영자 & 이병수
부부** 이영자 스쿨링캠프 손님들에게 독일마을에 사는 파독 근로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했어요. 해설을 듣는 20대 젊은 참가자분들은 각자 본인의 나이에 매치하더라고요. 내 나이대에 파독 간호사들은 이랬구나, 파독 광부들은 그랬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스쿨링캠프를 통해 우리 독일마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좋고 뿌듯해요.

이병수 아주 영광이었죠. 다만 한정된 시간에 해설하다 보니 참가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챙겨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30년 살며 여행사를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요. 그래서 해설할 때 독일과 독일마을의 역사 이야기도 곁들여 설명해 드려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반응해 주시면 참 반갑고 뿌듯하죠.

장명순 독일마을 방문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잊혀져 가는 우리? 3회차 캠프 참여자분들 중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 파독 근로자 출신의 독일마을 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우리가 같은 시대를 헤쳐 나오고, 지금 시대를 다양하게 살아 나간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Q2. 독일마을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김향숙 독일마을은 ‘웰니스의 전당’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풍경 때문도 있지만, 파독 간호사와 광부분들을 보며 내 삶을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밝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느끼게 되고요.

손혜련 독일마을은 실제로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독일마을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모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영자 & 이병수 독일마을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은 곳이에요.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스무 살 초반, 꽃다운 나이에 독일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개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죠. 정열적으로 일하

고, 또 짝을 만난 청년들이 노후에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독일마을이죠.

장명순 예전에 독일로 파견 나갔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어려운 시대를 겪고 또 살아낸 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Q3. 나에게 스쿨링캠프란?

이영자 & 이병수 ‘배움터’라고 생각해요. 남해와 독일마을을 여행하는 재미도 있고, 배울 점도 많고요. 저도 캠프를 통해 제 ‘결함’을 배웠어요. 제가 여행업을 했던 때에는 설명이 꼭 찬 여행을 했어요. 큰돈을 주고 떠난 여행이니 여행하는 사람들도 모든 설명을 녹음하고 기록하려 애썼죠. 저 역시 해설할 때 파독의 역사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어요. 다만 다음 번에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이며 여백이 있는 해설을 하고 싶어요.

재회의 밤 특별 게스트

Q1. 참여한 소감

김경자 캠프 참가자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파독 역사가 담긴 공간도 보고, 파독 간호사의 역사에 관해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독일 마을에는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젊은 분들이 오셔서 활기도 불어넣어 주고요.

석숙자 저는 파독 간호사이자 21년째 독일마을에 살고 있어요. 올해 스쿨링캠프 주제가 재회와 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포들, 그리고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아직 이 독일마을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1회차 캠프(할로 두, 하모)의 ‘재회의 밤’ 프로그램에서 독일어로 환영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정말 반가워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며 손님들에게 파독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죠.

CAMPER'S REVIEW

CAMP. 1

“작년과 올해 운 좋게 올 수 있었던 남해 스쿨링캠프!
이 프로그램 덕분에 남해를 진하게 느끼고
남해 독일마을 주민분들의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날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스쿨링캠프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회의 밤에 테이블마다 한 분 혹은
두 분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뜻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 진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클리프워크 체험과
요트 체험이었어요.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듯한 풍경 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요트 타던 순간이 정말 특별하고 짜릿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자연, 문화,
그리고 사람과의 교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경험을 통해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대받고 오게 되어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힐링과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특별한 자연 경관의 남해는 매년 방문하고 싶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2026
년에도 참가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남해 독일마을에는 볼거리 놀거리뿐만 아닌
감동의 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여운이 깊었습니다.
스쿨링캠프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알차고 개인 여행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어떤 여행보다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는 일정과 동선, 섭외 등
신경 써주신 손길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방문한 남해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관광지,
음식, 사람들을 만나고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 들이었습니다. 남해라
는 곳은 참 볼거리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역사, 문화, 식도락, 남해 자연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이야기,
독일의 문화, 맥주 및 소시지 학센, 남해 전통음식, 남해 바다
풍경 보기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 스트레스 풀고 갑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 프로그램들이 뜻깊었습니다.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요!”

“또 오는 남해이지만, 새로운 남해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독일 문화 체험도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던 파독 근로자들의 삶을 배우고
체험하여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해의 정겹고 아름다운 독일마을에서의 시간은

평생의 추억으로 가슴속에 남을 거예요.”

-

“알찬 구성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어요.”

-

“남해 독일마을 근처에서만 2박3일을 머물렀지만,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꼭 채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캠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

“다시 남해에 방문하니, 이전과는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었고,
다시 본 독일마을 풍경도 반갑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남해의 푸른 바다와 예쁜 들꽃, 언덕들을
화창한 여름 날씨에 만나는 건 색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개방, 포용이라는 키워드 아래 댄스수업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

“독일 마을 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웠고
친한 동생 덕에 또 하나의 추억을 한 페이지에 간직하고
재충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캠프에 또 오게 되어 기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요트 체험 너무 좋았어요!”

-

“십년지기 소꿉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탄 요트, 바다향이 나는 음식들과 붉게 물든
남해 독일마을의 지붕이 서울에 돌아가서도

은은히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고 2박3일 내내 참가자들을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남해와 독일마을이 더 친근하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추억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MP. 2

“많은 신청자분 중에 운이 좋게 선정되어 오게 된 숨슴, 씬.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에 걱정도 되었지만,
좋으신 분들이 많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힐링 오르골, 편백쉴 체험, 싱잉 볼 명상 시간 모든 시간이
힐링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남해에서 놓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해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주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무리 좋은 풍경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지나가는 장면일 뿐입니다. 어르신들의 삶과 인생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또한 좋았습니다.
석양 이쁜 풍경을 식당에서 폭풍 흡입하느라 놓쳤는데
저녁 풍경 감상하는 시간이 첨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번에 날씨가 어려웠지만, 60~70대 어른들 여행도
많이 기획해 주세요! 딸들이 성심성의껏 실행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프로그램(스쿨링캠프)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관광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독일마을에서 현지인처럼 생활해 보는 듯한 시간이 좋았습니다.
마을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주민분들의 친절함도 인상 깊었고,
쉽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들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이 와서 어떻게 쉴지를 몰라
일을 그만두고도 쉬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계속 뇌를 굴려 생각을 많이 한 저에게는 정말 큰 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쉴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쉽을 모르는 분들, 지친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독일마을 안에서 2박 3일 동안 할 게 뭐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데 이곳에서 다채로운 체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테마 또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있다면
이를 잘 살려 우리나라 마을을 홍보하고 알리는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스쿨링캠프는 쉬는 방법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캠프였어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슬로건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쉬다 갑니다!”

“쉽에 대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실 복귀해서도 이 2박 3일간의 쉬어가는 시간은
많이 기억될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쉽의 그림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어떤 쉽이 내게 맞고 맞지 않는지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보다도 스태프분들이
일정이 바빠서 고생하셨을 텐데 안 좋은 표정 한번 없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 많이 기획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파독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숲길을 산책하고,
맥주와 함께 콘서트를 보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요가를 하고
명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쉽을 경험했지만 결국
뒤돌아보았을 때 쉽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여기서 배운 쉽을
잊지 않고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쉽이 필요해서 쉽 여행을 왔지만 쉽 역시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쉽은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야 하므로
나를 알아가고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하기에
끊임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느꼈습니다.
이번 ‘쉽’ 여행 중 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저의 ‘쉽’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을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해의 풍경, 독일마을의 이야기, 숲과 명상, 기억에 남습니다.”

“쉽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파독 광부 · 간호사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은
더욱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운영진분들 친절하게, 매끄럽게,
곳은 날씨와 변수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일이 많아서 내게 쉽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짜여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획성 있게 쉬는 것도 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고 갑니다.”

“저에게 쉬는 단순히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깊은숨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이번 남해 스쿨링캠프에서는 바다와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달리며 놓치기 쉬운 호흡을 남해에서
천천히 호흡하며 즐길 수 있었고,
이번 독일마을에서 만난 역사와 삶의 흔적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으로 다가와 제 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남해 스쿨링 캠프의 다양한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태
프분들도 귀여우시고, 재미있게 진행 잘 해주셔서
잘 쉬다가 갑니다. 특히 명상은 현재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쿨링캠프에서 친구와의 추억도 만들고 새로운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여유로운 곳에서
웃으며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 스쿨링캠프를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새로운 여유와 쉬를 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직접 계획하는 여행만 하다가 잘 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너무 알차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남해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고향 남해! 고향이라 생각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 했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쉬이 필요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쉬를 위한 동적이고
정적인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분해 주셨고,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도 체험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았습니다.”

CAMP. 3

“모든 것이 대만족.
실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치여 갱년기를 시작으로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
아이들 사춘기. 힘들 때 힐링할 수 있게 도움 주신
스쿨링 캠프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 가슴에 새겨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저에게 많은 추억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극 I라서 어울림이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어 주춤거렸지만,
스태프분들이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고,
스태프분들도 항상 웃으시며 응해주셨습니다.
여행프로그램 참 알차서 더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과 여행한다는 게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설렘으로 바뀌면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가을날의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심한 배려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참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가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도
얼굴 한번 찡그림 없이 항상 웃으시며 잘해주셨어요.
모든 스태프분 감사드리고 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여행은 없다!
저는 실제 소도시를 여행하며 어반스케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 프로그램에 비교하여 볼 때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라
정말 신나고 감동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이영동 실장님 이하 여러 스태프분 고생 많으셨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알차고 좋았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참여하였는데, 내용이 크게 알차고
보람되게 보냈습니다. 여행 관계자의 열정도 대단하여
상품화된 여행프로그램보다도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연히 이번 캠프에 운 좋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도 너무 알차고 즐겁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신 소도시트레블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도에서 작가와의 만남은 처음이었는데
그동안의 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박 3일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는 건
잘 볼 수 없는 여행 상품이라 너무 알차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국적인 마을에서 학생들처럼 스쿨링캠프를 다녀온 기분도 들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여행보다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진중한 테마가
너무 좋았어요.
일상을 벗어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이 신청해주어서 왔는데 너무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이 딱딱하지 않고
우리 나이대에 무리 없이 여행 잘했습니다.”

“진행자와 스태프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연령대에 맞는 안내,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쉽게 접할 수 없
는 현지인과의 대화 시간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귀한 경험하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언젠가 또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연배들이 모이니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프로다워 보였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팀원이 항상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운영진의 섬세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여행하는 동안 내내
훈훈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조화롭게 편성되어 아주 유익한 캠프였습니다.”

“스쿨링 캠프란 단어들에 생소했다. 참여하고 보니 특별한 추억의
여행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러 모로,
나의 삶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일상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물건을 사고 디지털 노예가 되어있었다.

2박3일 동안 디지털에서 해방되었다. 유튜브나 뉴스들도 멀리하고
TV도 한 번도 안 켜고. 완전 힐링 그 자체였다.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 번 더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틱탁틱탁 소중한 시간.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내의 신청으로 캠프에 참여하였지만, 파독전시관 관람, 노도
김만중 선생님의 유배지 등을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쿨링 캠프가 많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여행 상품과 차별화된 점은 감동과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면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틱
틱 젊다 아이가. 감동, 감성 여행입니다.”

“좋은 사람들, 환경, 특히 남해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문학 감성과 체험으로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상, 감사, 희망, 용기를
얻고 갑니다. 스태프분들의 세심한 진행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CAMP. 4

“즐거웠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mazing program with great people and great staff.
various activities and visits were really interesting.
Thank you for welcoming us such a nice way and being kind
about vegetarians meals.”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소에는 해보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박3일 간 감사했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프랑크푸르트에서 2박 3일 동안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해 독일마을 투어, 미니 운동회,
오르골 만들기, 기억의 밤, 킨더 폴카 원데이 수업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다음에 남해 독일마을에 또 방문할게요. :-)”

“남해 독일마을을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고,
차가 없어 교통편도 좋지 않아 오는 것이 약간은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로 독일마을에 오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모두 스태프 선생님들의 노고가 느껴져
더 감사했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좋은 분위기까지.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즐거운 추억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남해독일마을에
또 오고 싶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정말x100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장소 중 한 곳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던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스쿨링 캠프를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너무 재미있었어요. 좋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스태프, 매니저분들이 특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보낸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Auf Wiedersehen !! (다음에 뵙겠습니다)”

-

“2박 3일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 기대 없이 왔으나, 많은 의미와 추억을 쌓고 돌아갑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실제 주인분들이 살아계셔서
책이나 영화와 다르게 살아있는 역사를 접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너무 알차고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운동회가 재미있었고,
외국인이 있으니 즐겁네요.”

-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해 처음 왔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

“너무너무 재밌고, 체험도 좋았어요!!!”

-

“이번 스쿨링 캠프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2박 3일
너무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려 깊은 배려를 캠프 기간 내내
받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다소 아쉬웠지만,
그때마다 스태프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주셔서
걱정 없이 캠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대부분 프로그램 및 숙소 그리고 전반적인 식사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독일마을에서 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역사적인 내용과 더불어 좋은 풍경과 여행을 할 수 있어
의미 깊었습니다.”

-

“최고입니다!! 독일마을을 경험하는 시간과,
참여자끼리 적절히 교류하는 시간이 섞여 너무 즐거웠고 알차어요. 특히
주민분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뜻깊고
더 여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

“전에 독일마을에 왔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었지만,
활동을 통해 파독 간호사분들과 대화도 해보고,
집도 방문해 보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독일마을에서 독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2박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서 아쉽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

-

“It was amazing !! Thank you !”

2025
스쿨링캠프를
함께 한 사람들

참여 주민 및 해설사

권영기

김경자

김옥례

김향숙

류길자

서부임

서원숙

석숙자

손혜련

신병윤

양경희

울머

이경석

이병수

이영자

이정희

정동양

정기진

장명순

장재봉

외부 강사

박선주(킨더폴카)

박찬원(킨더폴카)

셸위로큰롤(공연)

양희수(스냅사진)

이학경(공연)

유빈(싱잉볼명상)

최서영(시조워크숍)

한은정(요가)

로컬 사업체

국립남해편백자연휴

양림

미라도르 마리나

물미해안전망대

상주은모래비치

양마르뜨 언덕

스페이스 미조

노도문화관

숙박

겔베하우스

구텐베르크

노이하우스

로젠하우스

마인즈하우스

만하임

뮌헨하우스

바바리아하우스

베를린성

벨라하우스

본하우스

산타하우스

알프스하우스

에센하우스

프랑크푸르트

하노버하우스

하이델베르크

헤라클래스

호수위의집

캠프 참가자

CAMP 1

강부일

강연주

김경희

김지울

김지현

김형근

박규선

박상욱

박서아

박서준

박수경

박신여

박재원

박주원

송은미

신민서

신민호

유은향

유철현

이미연

이소영

이수빈

이주은

이호경

임은희

임진주

정우연

정이솜

정이준

조형미

한승희

CAMP 2

김기남

김동준

김보현

김종우

김지현

김진훈

김호현

노희아

문유민

박다혜

박세라

박요한

박정민

서인호

안소영

오유라

우성환

유진

이동건

이민호

이슬기

이조은

이해도

장혜진

전민호

정문희

조선명

최승우

최승원

최영옥

허숙영

홍수연

CAMP 3

강정현

강태임

김만년

김수진

김용삼

김윤정

김중원

문경미

박정신

박진화

서정민

송강희

송석태

심명옥

안병희

안종일

안진희

양애진

오진숙

우재영

윤영례

이경아

이미경

이상윤

이선자

이순옥

이순희

이연숙

임정희

전금순

정경민

정영봉

정영우

조윤주

CAMP 4

Léa레아

강혜진

Margaux마고

김은솔

Salomé사로메

김지훈

김한설

총괄

남선우

노천일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문승희

기획 및 운영

문태이

박다연

소도시트래블

박민식

강병호

박민정

강동리

박찬민

김규린

사보미

김동혁

성정환

김수정

우듬지

이영동

윤상혁

이정은

이경진

윤이나

이상현

이수민

이영수

이채희

전민경

정재원

조은지

황다운

황신형

Ainhwa아이노아

Hortense오르탕스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이 책은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5 독일마을 스쿨링캠프를 아카이빙한 기록북입니다.

